김형규 '나도 절친 악당' 가입

김조롱 9년 만에 우승 감격

설명회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 입시전문업체 메가스터디 주최로 17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 대입 지원전략 설명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시 지원 배치 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좁은 취업문 "인턴십이 정답이네…"

'미생' 장그래처럼 스펙 아닌 직무 역량으로 승부

"업무 검증·조직문화 배워 도움"…기업들 62% 채용

대학생 이모(27)씨는 최근 대기업 하반기 공채에 합격했다. 영문과 출신으로 이공계 비율 80%가 넘는 정자 게임사에 합격한 비결은 인턴십이었다. 이 회사는 대학 졸업예정자 인턴십을 거친 지원자에게 공채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면제했다. 인턴십은 방학을 이용해 진행된다. 이씨는 "인턴 출신은 공채에서 최종 면접만 준비하면 되니까 합격률이 높다"며 "대학생 인턴 경쟁률과 필기시험 수준도 정기 공채보다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4학년 1학기 대학생들은 인턴십에 사활을 건다"고 말했다.

인턴십이 새로운 채용 트렌드로 떠올랐다. 스펙보다 직무 역량을 강조하는 채용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사전체험 인턴십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17일 사람인이 기업 152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과 인턴십'에 대해 설문한 결과 기업 10곳 중 4곳이(42.1%) 공채 대신 인턴과정을 거쳐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었다. 인기 직장드라마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래가 인턴사원부터 시작해 한단계씩 정착해가는 모습과 비슷하다.

기업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의 평균 2배수를 인턴으로 충원하고 있었다. 설문 참여 기업의 43.8%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그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계획보다 많다는 응답도 18.8%나 됐다. 인턴십에 참여한 구직자의 62.6%는 안정적으로 정규직 채용이 되는 셈이다.

기업이 인턴 출신을 채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 능력의 검증'(62.5%, 복수응답) 때문이었다. 이어 '조직문화와 맞는지 검증 가능'(35.9%), '조기 퇴사로 인한 손해 방지'(31.3%), '충분한 업무 교육 가능'(20.3%), '채용관련 비용 절감'(20.3%) 등이 거론됐다.

지원 기업이 아니더라도 동종 업계 인턴 경험도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

유명 게임회사 파티게임즈 해외사업부에 합격한 정재원(26)씨는 타사 인턴 출신이었다. 정씨는 "다른 게임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했지만 현재 직장에 좋은 성적으로 취업했다. 관심있는 업계와 직군에 대한 경험을 쌓은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며 "인턴십은 취업과 별개로 내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맹목적으로 학점과 영어 점수를 올릴 시간에 일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경험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잡코리아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종 합격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원자의 실무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호 잡코리아 사업본부장은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 시 업무 전문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직종과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구직자들이 회사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조기 퇴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기업들은 실무에 투입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 구직자들은 목표 기업이나 직무를 설정한 후 그에 맞는 경험과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윤희기자 uniquy@metroseoul.co.kr

박 대통령 "G20 엔저 지적, 작정하고 얘기한 것"

"FTA 빨리 비준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호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엔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것에 대해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먹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미국 정상이 있는 와중에 글로벌금융정책공조를 얘기했는데 다소 어색한 주제가 아니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 참석해 "주요 선진국의 통화가치 쏠림현상은 일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최근 엔저와 달러화 강세 등을 겨냥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웠을 때 신흥국의 경제적 기여로 선진국도 그 효과를 보지 않았나"라며 "그 덕에 선진국 경제가 좀 회복됐다고 자국 입장만 고려해 경제 및 통화정책을 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 어느 한쪽의 정책이 곧바로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이뤄진 중국,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선언과 관련, "우리 정상들 간에 전화로 대화도 어려자례 하고 독려도 하고, 창조적 아이디어 묘안도 내고 해서 도움이 됐고 양보와 이해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만큼 어렵게 타결이 된 것이어서 하루빨리 비준이 돼야 한다"며 "다 기업과 국민이 이득을 보는 것이니 많이 도와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리 국민이나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일인데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합심해서 비준(동의)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뉴시스

'김정은 특사' 최룡해 러시아행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 방문길에 나선 북한 최룡해(왼쪽)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 비서가 17일(현지시간) 평양 공항에서 김기남(오른쪽 2번째) 당비서의 환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무상 복지 논란 '확산 모드'

예산국회 핵심 쟁점… 與 "국민에 물어봐야" vs 野 "공짜 왜곡"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의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대립에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인 무상 아파트 논쟁까지 휘말리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심사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답을 찾기 힘든 어려운 무상 복지 문제가 예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기한 내 예산안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운을 띄웠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지원 카드를 17일 지도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지금처럼 '포퓰리즘'으로 복지 혜택만 경쟁적으로 확대한다면 차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고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 당장 몇년 안에라도 국가 재정 부실로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복지 국가처럼 담세와 복지를 동시에 확대할지 아니면 세금을 조금 내고 복지 혜택도 조금 받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지 국민의 의견을 물을 때가 됐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무상 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 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지 국민에게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은 통수적 선택 과정인 만큼 불필요한 경기 부양 예산과 대기업 특혜 예산 등을 삭감하면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건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이라는 단어를 덧씌워 매도한다"며 "새누리당 집권 7년간 서민은 전세난에 허덕였는데도 정부는 대책 없이 빚 내서 집을 사라고만 했다"고 비판했다.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지리 권하는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국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총연합회 면담에서 참석자들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웨이 한국시장 공략 성공할까

기자 수첩

양성운 <경제산업부 기자>

중국 IT 기업의 성장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텃밭인 한국 스마트폰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름조차 몰랐던 샤오미가 삼성전자,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중국 ICT 기업 화웨이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X3를 한국에 출시하고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 진출을 알렸다.

중국내 1위 사업자인 샤오미는 아직 해외 진출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웨이는 공격적으로 시장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5위권에 진입했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과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사실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 대부분은 중국 현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시장에서의 성적은 신통치 않다. IT 강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많다.

이 때문에 화웨이는 최근 한국의 선진 스마트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국내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세운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 국내 제조사의 기술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자체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재 상황에 안주할 경우 조만간 언발을 내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과거 단순히 저렴한 제품으로 경쟁했던 중국 기업들이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빠르게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외산 스마트폰의 무덤으로 불리는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노리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성공신화를 만들어 낸다면 향후 글로벌 시장에 미칠 여파는 무시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단순히 스펙이 좋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집중하기보다 애플처럼 자체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속이 꽉찬 스마트폰을 개발해야 할 때다.

“12월 2일 예산안처리 국회 전통으로”

이완구 "쪽지 예산 없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예산안 처리는 앞으로 12월 2일이 국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야가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주요 현안을 처리했듯 예산안도 원만한 처리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당부터 투명하고 모범적인 심사를 선도하고 야당도 정쟁적인 공세는 자제하고 국민의 기대에 맞는 예산 처리와 심사에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오늘 중이라도 의견을 맞추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쪽지 예산은 없다"며 "모범적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도 솔선수범하고 나도 원내대표로서의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검찰, 김무성 딸 교수 채용 의혹 무혐의

● 참여연대로부터 딸의 대학교원 임용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검형사 4부는 "김 대표가 실제로 수원대 국감 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딸의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스마트폰 기부' 가능

●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회의원 개인에게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는 '스마트폰 정치후원 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앞으로도 선관위에만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있다.

“남양주 땅굴 허구 가능성 높아”

국방부는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남양주에서 땅굴이 발견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남양주 땅굴도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17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단체는 남양주 땅굴이 10월 30일 자신들이 발견한 양주시 광사동 땅굴과 연결된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광사동에서 발견된 땅굴은 발파석 되메우기와 실리콘 성분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허위로 판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땅굴을 발견하게 되면 통합방위법에 의거 신고 현장을 일단 보존해야 한다"며 "해당 단체는 국가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현장을 훼손하고 과학적 정밀조사는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이는 엄연한 범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허위 주장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정시 12만7000여명 뽑는다

총 모집인원의 34.8%…25일부터 설명회

2015학년도 정시모집 일정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에서 197개 대학이 총 모집인원의 34.8%인 12만7569명을 선발한다.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전국 197개 대학의 '2015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12만7569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36만6821명의 34.8%다. 이는 지난해보다 55명 줄어든 수치다.

대교협은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정원 감축과 대학의 자발적 정원 축소 등을 정시 모집인원의 감소 이유로 보고 있다.

원서 접수는 12월 19~24일이며 140개교가 인터넷으로만 원서를 받는다.

전형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가·나·다 군별로 진행된다. 가군이 내년 1월 2일부터, 나군은 내년 1월 12일부터, 다군은 내년 1월 21일부터다.

군별 모집인원은 가군이 139개 대학 5만2199명, 나군은 136개 대학 4만9114명, 다군에 120개 대학 2만8156명이다.

정시에서는 모집군별로 대학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한 개 모집군에 2개교 이상 지원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산업대·경찰대학·3군 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따른 대학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금지된다.

전형 유형별로 보면 올해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87.2%인 11만1211명으로, 지난해 9만1530명(71.3%)보다 크게 늘었다. 나머지는 실기 위주 1만4117명(11.1%), 학부 종합 1576명(1.2%) 등이다.

대교협은 25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정시모집 대비 설명회를 연다. 또 다음달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정시모집 대입정보박람회도 개최한다.

/이범수기자 rpdlone@metroseoul.co.kr

감말랭이 손질하는 스님 17일 전남 화순군 유천면 송광리 정광사에서 스님들이 초겨울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달콤하고 쫀득쫀득한 감말랭이를 손질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공휴일 총 66일 설날 닷새 '황금연휴'

2015년 공휴일이 66일로 올해보다 이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이틀 줄어든 것은 내년 3·1절이 일요일과 겹치고 올해는 6·4 지방선거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목인 연휴는 설 연휴다. 내년 설 연휴(2월 18~20일)는 수~금요일이어서 주말을 합치면 모두 닷새를 쉰다. 설 연휴 전날인 16~17일에 연차를 낸다면 주말인 14일부터 22일까지 무려 아흐레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긴 설 연휴를 보내고 나면 한동안은 쉬는 날이 없다. 3·1절(3월 1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등 3~4월은 평일에 법정 공휴일이 하루도 없기 때문이다.

5월은 석가탄신일인 25일이 월요일이어서 사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6~8월 중 법정공휴일은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이 있지만 모두 토요일이다.

내년 추석 당일은 일요일인 9월 27일이다.

그러나 대체휴일제에 따라 추석연휴 마지막 날(28일) 다음날인 29일에도 쉴 수 있어 추석 연휴는 모두 나흘(9월 26~29일)이 된다.

10월은 한글날(10월 9일), 12월은 성탄절(12월 25일)이 금요일이어서 사흘간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유주영기자

서울시·교육청, 혁신교육지구 등 추진

오는 2018년까지 서울 초등학교 빈 교실에 공립 유치원 34곳을 신설하는 등 학교 안 국공립 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 혁신을 위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함께 운영하는 등 핵심 교육 사업에 대해서 정책 구상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키로 했다.

낡은 학교 화장실을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또 스쿨버스, 학교 내 햇빛발전소, 교통안전교육 도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교육혁신도시 서울' 비전을 선포하고, 20대 교육협력 사업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공동선언문에서 "그동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은 분업이 아닌 협업을 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협치)의 모범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협력사업은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7개) ▲평생학습과 학교·마을 상생(5개)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7개) ▲공교육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1개)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학교 안은 교육청, 학교 밖은 서울시가 전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고 공동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거버넌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시와 교육청은 협력사업에 내년에 699억원(시 274억원, 교육청 425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8년까지 민자 유치를 포함해 총 5160억원을 쓴다. /유주영기자

'룸살롱 황제' 이경백 성매매 알선 또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룸살롱 황제' 이경백(42·구속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투자자 김모(49)씨 등 이씨의 공범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업소 이름을 바꿔가며 올해 4월까지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주영기자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전 국장 실형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과 송씨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다른 사람을 관여자로 내세우거나 음모론을 내세우며 수사에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는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이 국정원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유주영기자 boo@

담양 화재 펜션 업주 "보험가입 안 해"

바비큐장 화재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전남 담양의 펜션 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담양경찰서는 펜션 업주가 펜션 운영과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험사를 통해 업주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화재 현장 감식 상황 등을 고려해 조만간 업주에게 소환장을 보낼 계획이다.

경찰은 또 불이 난 펜션의 업주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펜션 영업 전반과 업주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이 펜션 대표는 광주 한 기초의회 의원 최모(54)씨의 부인으로 등록돼 있다. /연합뉴스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 추모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11월 23일)를 엿새 앞둔 17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묘소에서 충북 단양고 학생들이 묵념하고 있다. 위쪽으로는 두 전사자의 사진으로 '추모의 언덕'을 조성하는 모습. /연합뉴스

metro Russia

metro Venezuela

en el fondo se lee la frase "Regreso a clases" Además se exhiben unos cuadros con datos sobre el embarazo entre adolescentes en Venezuela con el lema "Cada tres minutos queda embarazada una menor de edad"

MIGUEL VELÁZQUEZ

청소년 임신부 마네킹 논란

최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시내 쇼핑몰에 교복 입은 임신부 마네킹이 등장, 논란을 빚었다. 임신부 마네킹은 한 비영리 단체가 설치했다.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청소년 임신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시민은 도심 한복판에서 청소년 임신부 마네킹을 보는 것이 불편하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의 미성년자 임신율은 남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metro France

PHOTOS · Visitez la première ... shui de France, à Issy-les-Mo...

풍수사상 반영 학교 화제

프랑스 남부 도시 이시레물리노에 중국의 풍수 사상에 입각한 학교가 개교했다. 프랑스 최초의 풍수사상을 따른 이곳은 겉으로 보기엔 여느 학교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교내 공유 공간은 갈색, 노랑, 주황과 같은 따뜻한 계열의 색으로, 교실은 자연색으로 칠해져 있다. 색깔이 창의력을 길러준다는 풍수 사상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학교를 짓는 데 총 2년이 소요됐으며 490만 유로(약 67억 원)가 들었다.

신혼부부 일주일 '노숙 체험'

돈·휴대전화·신분증 없이 거리 생활 …지하 계단 등서 쪽잠도

러시아 신혼부부가 일 주일간 돈과 휴대전화·신분증 없이 거리 생활을 해 화제다.

첼랴빈스크주 행정부 내 특별 프로젝트 운영부서 직원인 안톤 예르부힌은 '도시 속 야생'이라는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일주일 동안 아내 알리사와 함께 노숙을 했다. 예르부힌은 이색 체험을 통해 첼랴빈스크 주를 알리고자 촬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연히 무인도에 남겨진 사람들의 생존 생활을 재현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무인도에 가는 대신 도심 속에서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돈과 통신 수단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생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아내의 손을 잡고 도망쳤다. 배고픔과 추위에 떨다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프로젝트를 망칠 것 같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예르부힌은 프로젝트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가장 기초적인 생활 요소를 꼽았다. 그는 "식수와 같이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일이 힘들었다"며 "처음 이틀 동안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예르부힌은 "아내 알리사가 나보다 더 힘들어했다. 결혼하자마자 고생을 시킨 것 같다"며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에 알리사는 "남편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너무 힘들 때는 같이 거리 생활을 해보자며 이 프로젝트에 끌어들인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숙 첫 날에는 건물 지하 계단에서 잠을 잤다"며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는 힘들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며 해맑게 웃었다.

/올가 수카노바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metro Brazil

só de mortos

고인 추억 기록하는 '디지털 묘비' 눈길 공동묘지 후원까지

한 브라질 대학생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묘비'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비록 오프라인 상으로는 죽음을 맞이했더라도 네트워크 상에서는 그들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이어지고 있다. 그 예로 페이스북에서는 유가족들이 지우지 못한 고인들의 수 많은 프로필 페이지가 아직도 남아있다.

지아구 비니시우스 코제아(24·컴퓨터 공학과 학생)는 여기서 특이한 아이디어를 착안해 냈다. 바로 온라인 묘비를 만든 것. 이 사이트에서는 고인의 추억들을 간직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다.

이용 고객은 QR코드로 이루어진 '디지털 묘비'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사이트 속 고인의 프로필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다. 공개 여부 또한 설정할 수 있으며 전체 공개 혹은 가족에게만 공개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이 프로필 페이지 방문객들은 고인의 사진 및 메시지를 구경할 수 있으며 묘지 위치까지도 알 수 있다.

가격은 90헤알(약 3만 8000원)에서 290헤알(약 12만 4000원)까지 저장된 정보양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현재 40명의 고객이 이용 중이다. 최근에는 브라질리아의 한 공동묘지 측의 후원 또한 이루어졌다.

/기자 · 정리=인턴기자

"취미가 직업이 된 난 행운아!"

고등학교 교사서 회사원으로… "해외직구 한 번 질러봐라!"

사람이야기

■이예경 몰테일 대리

"취미 생활이 직업으로 바뀐 전 행운아죠."

6년여간 고등학교 역사·종교 과목의 교사로 일하다가 단순히 해외직구가 좋아서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업체로 이직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에 그 주인공을 만났다. 2010년부터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업체인 몰테일에서 근무하는 이예경 대리가 그 주인공. 인터뷰하는 내내 환한 미소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그녀의 표정에서 현재 직업과 회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6년 간 고등학교 교사 생활

이예경 대리의 과거 이력은 독특하다. 휘문고등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이화여대부속고등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가르쳤다.

"어쩌면 교사로 일하게 된 것은 집안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아버지가 교사였고, 어머니는 학원에서 부원장을 지냈다. 이모와 이모부도 모두 교사였는데 나도 당연히 커서 교사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엄한 부모님의 영향으로 학창시절 공부만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다고 전했다. 어쩌면 고등학교 시절까지 자유롭지 못했던 영향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성격을 변화시킨 계기가 됐다.

조용했던 여고생이 활달한 여대생이 되고, 학생들 앞에 서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갔다. 해외직구나 새로운 나를 찾고자 배우기 시작한 특공무술 등 취미 생활은 삶의 활력소가 됐다. 그러던 어느날 그녀는 몰테일의 신입사원 공채를 했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예경 몰테일 대리는 해외직구를 두려워하기보다 과감하게 시도하다보면 보다 현명하고 알뜰한 소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보다 크리스마스 이후를 노려 해외직구에 나선다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손진영 기자 son@

◆몰테일 입사는 나의 운명

이 대리의 몰테일 입사는 그야말로 운명이었다. 단순히 대학시절 처음 접한 해외직구가 너무 좋았던 데다가 정직원이 되고 싶다는 일념에 무작대고 몰테일의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했다. 당시 면접관도 그녀의 이력을 보곤 놀랐다고 한다. 이 대리는 면접에서 자신의 해외직구 비법과 적극적인 모습으로 합격했다.

이 대리는 몰테일에 입사해 해외직구 강사로도 나섰다. 그녀가 해외직구 강사로 나선 것은 해외직구에 대한 풍부한 경험때문이기도 했지만 교사라는 이력이 한몫했다. 과거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경험을 되살려 해외직구 기초이론, 상품별 추천 사이트 등 직구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전달했다. 고객의 호응도 높아져 초창기에는 해외직구 강의가 한달에 1번 진행됐지만 최근 한달에 4번으로 늘어났다.

그녀는 몰테일 입사가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단순히 정직원이 되고 싶어, 마냥 해외직구가 좋아서 선택했던 몰테일로의 이직이었는데 그야말로 탁월한 선택이었다. 주위에서는 이 대리에게 천직이라고 할 정도로 직업이 적성에 맞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교사였다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니 어려움도 있었다. 직장 문화가 다르다보니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문서화된 부분에 대해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결국 시간을 두고 참고 견디다 보니 이젠 적응도 되고 직장 생활이 더 없이 행복하다."

/이재은기자 lye4003@metroseoul.co.kr

이 대리의 해외직구 *Tip*

"해외직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 질러봐라!"

이 대리는 해외직구를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이 '영어 때문에', '과연 집까지 배송이 올까' 등 불안해하는 마음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이런 두려움을 떨친다면 현명한 쇼핑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배송기간도 길고 배송추적도 어려워 해외직구에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데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한 번 구입을 해보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직구를 여러차례 시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하게 된다. 같은 제품을 두고 다른 사람과의 가격비교를 통해 자신이 해외직구를 하는데 눈이 트인다는 것이다. 쿠폰코드나 적립 사이트 등을 알아보게 되고 점차 눈을 키우다보면 핫딜에 대한 눈도 트인다.

좋은 순간 명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핫딜 정보를 위해 많은 이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고자 다양한 해외쇼핑몰에 접속한다. 결국 이들 중에 많은 정보를 얻는 직구족은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반면, 직구 초보들은 헛수고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모든 해외직구가 싼 것은 아니다. 결국 해외직구 핫딜은 타이밍이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많은 해외직구족이 주목하고 있다. 매년 11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일컫는 블랙프라이데이는 전통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리는 시점이자 연중 최대의 쇼핑을 하는 날이다. 그녀는 해외직구족에게 전자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블랙프라이데이를 노려도 좋지만 다른 제품을 구매한다면 크리스마스 이후가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블랙프라이데이에도 다양한 제품이 싸게 팔리지만 직구 고수들은 12월 26일 이후에 본격적인 쇼핑을 하죠. 사실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미국의 쇼핑몰 업체들은 재고처리를 위해 이 때부터 대대적인 할인에 나서거든요. 이 때를 노린다면 대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답니다."

한화솔라원, 충북 음성에 모듈 공장

한화솔라원이 충북 음성에 230MW 모듈 공장을 신설한다.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시설 확충에 나선다.

중국에 본사와 공장을 둔 한화솔라원은 17일 충청북도 음성군에 230MW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230MW 규모는 경기도 김포시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에 해당된다.

한화솔라원은 130여억원을 투자해 내년 5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화솔라원은 연간 1400억원의 매출과 7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큐셀코리아가 한화솔라원의 모듈을 이용해 전라도의 유휴부지에 건설한 MW규모의 [illegible] 발전소. /한화솔라원 제공

한화솔라원은 신설되는 모듈공장 가동을 위해 200여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특히 모듈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원도 주준히 확충해 모듈 연구개발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듈을 미국으로 수출해 중국산 모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태양광시장 공략도 효과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한화솔라원은 중국 렌윈강에 800MW의 잉곳과 웨이퍼 공장을 두고 있다. 치둥에 위치한 셀과 모듈 공장은 생산 라인 증설을 완료해 1.5GW의 셀 생산규모와 2GW의 모듈 생산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이에 더해 충북 음성의 모듈공장까지 완공되면 한화솔라원의 모듈 생산규모는 2.23GW에 이른다. /김승호기자 bream@

경동나비엔, 유럽시장 공략 본격화

보일러업계 경동나비엔이 17일 업계 최초로 영국 런던에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최근 영국 난방기기 유통기업인 'HPS'를 파트너로 선정, 향후 3년간 1900만 달러 규모의 콘덴싱보일러를 공급하는 MOU를 체결하며 영국 시장 진출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쐈다.

앞으로 경동나비엔은 유럽 시장에 맞춘 콘덴싱보일러 'NCB CE'와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 '나비엔 하이브리젠 SE' 등 콘덴싱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선다.

아울러 영국 현지 유통업자 및 설비업자와의 접점을 강화하는 밀착 마케팅 활동도 진행한다.

경동나비엔 최재범 대표는 "콘덴싱보일러 기술을 유럽에서 도입했던 경동나비엔이 콘덴싱보일러는 물론, 콘덴싱보일러보다 한층 진화한 전기발전보일러도 수출하며 유럽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다"며 "앞선 콘덴싱 기술력과 북미 시장과 러시아 시장 1위로 올라선 경험을 바탕으로 보일러의 본고장인 유럽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둘 자신이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영국에서 열린 난방과 배관 전시회 'PHEX 동서 2014' 현장 모습

/김근홍기자 mukim@

market index <17일>

코스피	코스닥
1943.63	531.16
(-1.58)	(-10.75)

금리	환율
2.16	1095.40
(-0.02)	(-4.90)

기아차 'K9 퀀텀' 공개

기아자동차가 5000cc급 엔진을 얹은 K9을 선보였다.

기아차는 17일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반얀트리 호텔에서 회사 관계자와 자동차 담당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더 뉴(The New) K9의 사전발표회를 가지고, 5.0 엔진을 탑재한 K9 QUANTUM(퀀텀)을 최초로 공개했다.

K9의 부분변경 모델인 더 뉴 K9은 기존의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디자인에 웅장함과 세련미를 더하는 한편, 국내 최고급 V8(8기통) 타우 5.0 GDI 엔진과 다양한 신기술을 탑재했다. 기아차는 동급 최대 실내 공간에 승차감과 정숙성을 갖춘 K9이 국내 대형차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차는 더 뉴 K9을 선보이며 지금껏 국내에 출시한 기아차 차종 중 최초로 5000cc급 V8 타우 5.0 GDI 엔진을 탑재한 K9 QUANTUM(퀀텀)을 출시했다. 퀀텀은 물상 물리학에서 연속된 현상을 넘어 다음 단계로 뛰어오르는 퀀텀 리프 현상을 뜻한다. 경영학에서는 '혼돈의 환경을 뛰어넘는 비약적 발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유재형기자

한국, 선박 인도량 중국 제쳐

Issue&View 조선업 전망 높아지나

5년만에 해양 플랜트 제외한 선박… LNG선 시작하면 격차 늘어날 것

/김민준기자 jmk.in@metroseoul.co.kr

한국 조선업계가 선박 인도량에서 2009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제 해운·조선 시황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의 누적 선박 인도량은 1002만7000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로 중국의 978만4000CGT을 제쳤다.

한국은 2009년에만 해도 1320만CGT로 중국(1091만6000CGT)을 앞섰으나 2010년 1423만2000CGT로 중국(1662만8000CGT)에 뒤지기 시작했다. 2011년(한국 1407만8000CGT, 중국 1722만9000CGT)과 2012년(한국 1260만1000CGT, 중국 1780만3000CGT)에는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하지만 지난해(한국 1121만2000CGT, 중국 1156만7000CGT) 다시 차이를 좁히기 시작해 올해 결국 역전에 성공했다.

조선소별 인도량을 보면 현대미포조선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61척으로 1위. 일본 이마바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각각 50척과 45척으로 2·3위를 기록했다. 중국 조선소는 상하이와이가오차오 조선소가 25척으로 9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전경.

이와 관련, 국내 조선업계 관계자는 "클락슨의 자료는 조선업계 매출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해양 플랜트 등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조선업계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가져온 2008년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물류 이동이 줄어들며 선박보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양 플랜트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기술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 단가가 저렴한 벌크선 등에서 절대적인 물량을 확보했다.

다만 선박과 관련한 클락슨의 자료는 기본적인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즉 해양 플랜트를 제외한 선박에서도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중국을 앞질렀고, 내년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북미발 '셰일가스 붐'으로 인한 LNG선 발주 물량이 올해에 이어 내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 김현 애널리스트는 "2015년 산업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LNG선, 컨테이너선 등의 발주량이 올해보다 15%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북미발 셰일가스로 인해 내년 LNG선 신규 수요가 160척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LNG선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9월 말 기준 컨테이너선 14척, LNG운반선 5척, 탱커선과 드릴십 등 29여척을 인도했다.

발주량은 17일 현재까지 쇄빙 LNG선 10척을 포함해 LNG선 18척, VLCC(초대형 원유운반선) 10척, 컨테이너선 3척, VLGC(초대형가스 운반선) 12척 등 상선에서만 76억 달러가 넘는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LNG선이 18척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즉 앞으로 인도량 역시 LNG선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아직 중국은 LNG선, 컨테이너선 등 고도 기술력이 필요한 선박은 한국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과의 인도량 차이는 앞으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강산관광 16주년, 현정은 회장 방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이 금강산 관광 16주년 행사의 현 ○○ 시설 점검을 위해 18일 방북한다.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6년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연지동 현대아산 투어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13% 시간제 근로

60세 이상서 급증 논란

여성 취업자 100명 중 13명 가량이 시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급격히 늘어 질 나쁜 일자리만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14만9000명) 늘어난 203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8월(107만2000명)에 비해서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남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3.9%인 반면 여성은 무려 13.2%에 달했다. 일자리가 있는 여성 100명 중에 13명 이상이 시간제 근로에 종사한다는 얘기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시간제 근로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시간제 근로자중 60대 이상의 비중은 2004년 12.1%에서 올해 28.5%로 두배가 넘게 늘어났다.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 중에 시간제 근로자는 24.9%를 차지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자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됐지만 여성과 노년층 대상의 질 나쁜 일자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국명기자 lkm@

삼성 입사하려면 이공계 나와라?

전체 90% 수준… 인문계 비중 높은 곳 5곳 뿐

하반기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신입사원 10명 가운데 9명은 이공계 출신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출신 비중이 높은 곳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호텔신라 등 5곳 정도에 불과했다.

17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계열사별로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합격자 발표를 시작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450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뽑는다.

연구개발, 설비, 기술, 영업마케팅, 경영지원, 디자인 등으로 부문을 나눠 인재를 선발한 삼성전자의 경우 이공계 비중이 85%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 관련 계열사인 삼성전기, 삼성SDI(에너지솔루션 소재), 삼성테크윈 등도 이공계 비중이 80~90%로 파악된다. 그나마 삼성SDS는 이들 계열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인문계 비중이 큰 편이다.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 중공업 부문과 삼성종합화학, 삼성정밀화학 등 화학부문 계열사도 이공계 점유율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모직 리조트·건설 부문은 이공계와 인문계 비중이 7대 3 정도였다.

인문계 출신 비중이 큰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인문계 여러 학과가 골고루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토목·건축공학 등 이공계 비중이 크다. /박상준기자 zu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9(서린동 2가)
TEL 02)721-9800, FAX 02)730-191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2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 가00000

엔화·유로화 표시 RP 출시 대신증권은 외화 투자수요 대비하여 발맞춰 엔화와 유로화 표시 환매조건부채권(RP)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유학이나 여행 등 단기외환 사용계획이 있거나 외화결제가 잦은 수출기업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엔화 표시 RP는 1000엔, 유로화 표시 RP는 10유로다. /대신증권 제공

車 보험료 전격 인상 '꼼수'

악사(AXA)·현대하이카다이렉트 등 손보업체가 자동차보험료를 하반기에 전격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계는 상반기에 소비자 반발을 우려해 인상하지 않은 보험료를 이슈가 잦아들자 슬그머니 올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손해보험협회가 공시한 자동차보험료 조정내역에 따르면 악사는 지난 9월 1일 업무용 차량의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한 다며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6% 올렸다. 이어 같은 달 21일부터 손해실적에 따른 조정 명목으로 보험료를 평균 2.6%를 추가로 인상했다.

애초 악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만 지난 6월 초부터 평균 1.6%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악사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는 종전보다 평균 4.2% 인상됐다.

이어 악사는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보험료도 지난 9월 1일부터 평균 1.6% 올렸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도 지난 5월 6일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8% 인상하면서 업무용·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이카다이렉트는 지난 7월 27일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2% 올렸다.

MG손보도 지난 9월 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4% 상향 조정했다.

앞서 MG손보는 지난 5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올렸다. 영업용 차량은 평균 2.1%, 업무용 차량은 평균 2.3% 각각 인상됐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5월 중순 자동차보험료를 영업용 차량 평균 7.7%, 업무용 차량 평균 2.9% 각각 올린 뒤 지난 7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1% 인상했다. 다만 롯데손보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인상 사실을 미리 대외적으로 공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이미 8월에 공시를 했다"며 "올해 안에 추가적인 인상은 없지만 내년에는 손보협회와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금감원 PG 4개사 정기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은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인 LG유플러스·한국정보통신·엘로페이·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등 4개사의 정기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전자상 금융거래 증가하고 간편결제 도입에 따라 PG사가 카드정보를 보관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자금융업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등 경영건전성과 가맹점 외부주문 관리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어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보안 취약점과 비슷한 사항에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형석기자

<금융기술>

카드사·통신사 '핀테크' 시동

모바일 결제시장 주도권 경쟁 치열 뜨거워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다음 카카오가 은행·카드사와 손잡고 소액 결제와 송금이 가능한 카카오페이(카페)와 뱅크월렛카카오(뱅카)를 내놓음에 따라 관련 업계 간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핀테크(FinTech)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상담지원센터를 열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ique)이 더해진 신종 금융서비스로 국제송금부터 결제,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지원은 핀테크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대처로 풀이된다. 특히 3700만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출시한 다음카카오의 뱅카·카페의 성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알리페이, 페이팔 등의 확산에 따른 세계적인 모바일 결제 시장 흐름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뱅카의 경우 시중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1회 50만원까지 뱅크머니로 충전할 수 있다. 한번에 최대 10만원을 카카오톡 친구에게 전송할 수 있다.

카페는 미리 신용카드를 등록한 뒤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이통사간 결제 시장 주도권 경쟁에 치열하다.

최근 KB국민카드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홈 앱'과 '모바일홈 웹'을 개편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홈 웹과 앱은 PC환경과 유사하게 구성해 사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하나SK카드는 '하나SK 모바일카드' 등을 통해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활성화에 나섰다.

'모바일카드'는 스마트폰 USIM칩에 카드를 내려받아, 일반가맹점에 설치된 NFC결제단말기에 스마트폰을 터치하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앱카드와 달리 구동시간 없이 결제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여러 장의 카드를 휴대폰 NFC를 통해 한 장의 카드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원카드 서비스'를 내놨다.

이는 NFC 기능을 갖춘 휴대폰만 있으면 공비친을 덤제된 한 장의 카드로 여타 카드의 번호나 유효기간 등 정보 조회와 메인카드 설정이 가능하다.

반면 이통3사는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금융 결제시스템을 연계하는데 초점을 뒀다.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와 연계해 스마트폰의 바코드나 QR(Quick Response) 코드, NFC(근거리무선통신)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LGU+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나우(Paynow)'에 뱅카와 유사한 개인 간 송금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블루투스 저전력(BLE) 기술 기반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개발했다. /백아란기자 ※ arl2014@metroseoul.co.kr

허그론 300억 돌파 신한은행은 11일 중금리 서민금융상품인 '허그론'이 대출실적 3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허그론은 신한저축은행과 연계해 마련한 것으로 평균 12%대의 중금리로 취급되는 상품이다. 이는 출시 1년 4개월만에 2500여명의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신한은행 제공

은행·증권 복합점포 개설 '붐'

금융권에 은행·증권 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복합점포' 개설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당국이 복합점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복합점포 확장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복합점포가 개설되면, 고객들은 점포 한 곳에서 은행 업무는 물론 증권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며 "은행들 역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어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5월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본사 1층에서 여의도증권타운지점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여의도증권타운지점은 농협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이 최초로 개점한 복합점포다. 임직원은 물론 우리투자증권을 방문하는 일반 고객들도 농협은행을 통해 토탈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이런 식의 대형 복합점포를 늘릴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은 서울에만 44개의 지점과 해외에도 10개의 사무소를 운용 중에 있다"면서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많아 점포 전략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최근 복합점포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기업은행은 TF를 통해 복합점포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BK투자증권은 기업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은행 구로동지점 내 '구로기업금융지점'을 지난 3월 개설했다. '구로기업금융지점'은 은행 지점 내 소규모 증권창구와 달리 은행과 증권사 지점을 합친 형태의 복합점포다. 은행·증권간 경쟁력을 결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는 구로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기업고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올 연말까지 복합점포 설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민지기자

일본계 자금, 금융권 잠식 가속화

캐피탈·저축은행 속속 인수… 초긴장

Issue&View
고금리 악기능 우려

/김희나기자 khn8404@metroseoul.co.kr

일본계 자금이 급속도로 국내 캐피탈·저축은행시장을 잠식해 가면서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계 금융사인 제이트러스트는 지난 6월 국내 캐피탈업계 2위 아주캐피탈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이트러스트는 지난 1977년 설립된 일본 금융사로 올해 3월 말 연결기준 총자산은 3조3000억원으로, 자산규모 6조원이 넘는 아주캐피탈을 인수하게 되면 제이트러스트는 총자산 9조원 규모의 대형금융사로 성장하게 된다.

제이트러스트는 이미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2011년), 친애저축은행(구 미래저축은행, 2012년), 하이캐피탈대부,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2014년) 인수 등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최근에는 아주캐피탈에 이어 SC금융지주로부터 SC저축은행을 사들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자산규모 3조6443억원의 국내 최대 저축은행 SBI저축은행도 일본계다. 지난해 일본의 투자금융회사 SBI가 당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사들였다.

재일동포인 최윤 회장이 최대주주인 아프로서비스그룹(러시앤캐시)도 올해 OK저축은행(자산규모 4862억원)을 인수했다. 아프로그룹은 현재 매물로 나온 한국씨티캐피탈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OSB저축은행과 스마일저축은행도 일본계 기업인 오릭스그룹이 운영하고 있다.

업계는 일본계가 국내 저축은행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이유로 부실저축은행을 낮은 가격에 사들인데다 대부업의 성공을 꼽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계는 최근 몇년간 수익 보조로 지난 2009년 말 전체 대부액 비중 49.9%에서 2012년 말 52.3%, 지난해 말 56.2%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내 조달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차익도 주 요인이다.

일본계 자금의 잠식에 대해 금융권의 경계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본계가 장악한 대부업계의 경우 기업체보다 개인 신용 대부에 주력하고 있다. 자금중개라는 본연의 역할 보다는 채권추심 등 고수익 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실제로 일본계의 개인신용 대부액은 4조7300억원으로 전체 대부액의 95%를 차지했다. 일본 업계의 대부 금리도 연평균 36.8%로, 내국계의 27.8%보다 9%포인트 높았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계 대부업계는 우리나라에서 기업대출로의 순기능 보다는 개인 고금리 장사로 이득을 얻고 있다"며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개인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내 저축은행이 스스로 부실사태를 키워 구조조정에 들어갔지만 이를 인수하면서 상당부분 경영정상화에 일조한 것도 사실"이라며 "일본계가 마치 국내 업계를 장악했다고 비판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MS신용카드 대출 전면 제한

금감원, 위·변조 방지 위해 내년 3월부터

앞으로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ATM)에서 마그네틱(MS)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카드대출이 제한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위·변조 등을 통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MS신용카드 카드대출이 이용이 가능한 ATM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S카드와 전자칩(IC)카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ATM 비중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두달간 전체 ATM기의 40%, 내년 1~2월엔 20%로 줄어든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MS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을 전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9월 말 현재 개인신용카드의 IC전환율은 97.6%이며 아직 IC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MS카드는 183만장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9~10월 모두 28개 기관 9만여대의 ATM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에 탑재된 IC칩을 이용해 카드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 후 대출을 승인하는 IC승인 시범운영을 한 결과 특별한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만 고객편의 차원에서 내년 2월까지 IC신용카드의 IC칩 인식 오류 등 장애 발생시에는 MS방식으로 자동전환해 거래되도록 조치하고 금융기관별 전담 대응반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MS신용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는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보안성이 우수한 IC신용카드로 조속히 전환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다미기자 [illegible]

아주캐피탈 3분기 순익 252억 전년비 70%↑

아주캐피탈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70.4% 증가한 25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영업수익은 59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연체율이 지난해 3분기 4.45%에서 올해 3.93%로 개선되는 등 대손상각비를 포함한 영업비용이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2% 증가했다.

규제는 강화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캐피탈업계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는 평가다.

대신증권 김한이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4분기 자동차판매 성수기 효과로 분기순이익 증가 예상. 연초 예상했던 방향대로 영업수익률 하방경직성 확보, 이자비용률 하락, 건전성지표 안정화의 3박자가 조화되며 회사의 펀더멘털과 이익창출능력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주캐피탈은 그간 한국GM 쉐보레 외에 포드, 혼다, 폭스바겐, 재규어 등 수입차 제조업체로 제휴사를 다변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장기렌터카 시장에 진출했다.

또 중고 승용 및 개인금융 다이렉트 영업 확대 등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김희나기자

후강퉁 시황방송 서비스 유안타증권은 중국 본토 상해증시와 홍콩 증시 간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 시행에 맞춰 17일부터 후강퉁 매매서비스를 개최하고 관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강퉁 시황방송인 마이넷(MyNeet W) 을 통해 매일 오전 시부터 전날 상해, 홍콩 시황과 종목 추천, 신규 중국기업 리포트 해설, 투자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유안타증권 제공

"후강퉁 본격 개장"

증권사 앞다퉈 실시간 시세 조회 서비스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의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 제도가 17일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본토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국내 일부 증권사들은 앞다퉈 후강퉁 종목의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조회하는 이벤트를 내놨다.

키움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은 연말까지 중국 상하이 A주 등 후강퉁 종목의 실시간 시세정보 조회서비스를 무료로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현대증권은 200만원 이상(계좌가 기준) 해외주식 거래 고객 중 매주 선착순 50명에게 연말까지 실시간 시세조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삼성증권은 다음달까지 상해 A주를 거래하면서 실시간 시세까지 이용한 고객에게 선착순 500명까지 1개월치 시세조회비용(90위안 상당)을 지원한다.

유안타증권은 내년 2월 12일까지 실시간시세 사용료를 결제한 고객 중 선착순 200명과 이 기간 상해A주 또는 홍콩 주식을 1억원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 실시간 시세조회 비용을 제공한다.

후강퉁 시행으로 국내투자자를 포함한 외국인들도 그간 투자가 어려웠던 중국 본토 A주 종목을 홍콩 시장을 거쳐 직접 사들일 수 있게 됐다.

홍콩에서 중국으로 투자하는 종목은 본토 A주 가운데 우량주 568개 종목이다. 이들 종목이 상하이종합지수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한다.

후강퉁 시행 전까지 개인투자자 등 외국인은 중국 상하이증시에서 외국인 전용주식인 B주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기관투자자더라도 A주 투자를 하려면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자격을 얻어야 해 중국 우량주 투자가 쉽지 않았다.

상하이거래소의 거래시간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전장이 10시30분~낮 12시30분까지며 오후 2시까지 휴장했다가 오후장이 2~4시에 다시 열린다.

동시호가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15분부터 10시25분까지다.

후강퉁 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오는 2017년 11월 16일까지 3년간 면제된다.

기존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에 해당하는 기관에도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해외투자자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의 10%를 자본이득세로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세제 혜택을 통해 후강퉁 초기자금이 더 활발하게 유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후강퉁 개막에 맞춰 면세 혜택을 결정한 것은 시장 개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폭스바겐 티구안 누를 수 있을까?

시승기

닛산 캐시카이

1.6 디젤 엔진과 무단변속기 조합…뛰어난 연비 자랑

"유럽에서는 캐시카이가 동급 베스트셀러예요. 우리나라에서 독일차 선호도도 바뀔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현대 투싼ix, 기아 스포티지R, 폭스바겐 티구안의 경쟁자인 '캐시카이'의 출시를 앞두고 한국닛산 관계자는 자신감 있는 어투로 이렇게 말했다. '캐시카이'는 이란 유목민족에서 따온 이름. 1세대 출시 당시 '도시의 유목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인 모델은 올해 1월부터 전 세계 판매가 시작된 2세대 모델이다.

캐시카이의 길이×너비×높이는 4380×1805×1590mm로 구형 로그와 비교하면 290mm 짧고, 5mm 넓고, 90mm 낮다. 휠베이스(바퀴 축간거리)는 캐시카이가 2645mm로 구형 로그보다 45mm 짧다. 줄어든 차체 길이에 비하면 휠베이스 차이는 크지 않은 셈. 경쟁차종인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교하면 차체 길이는 50mm 짧지만 휠베이스는 41mm가 길다. 현대 투싼ix보다는 길이가 30mm 짧고 휠베이스는 5mm 길다. 경쟁차종보다 차체 길이는 짧지만 휠베이스를 늘려 실내공간을 키우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뛰어난 연비를 보여준 닛산 캐시카이.

다소 밋밋했던 구형 로그와 달리 캐시카이는 다부진 인상이다. 차체 크기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7인치 휠을 기본으로 달았고, 플래티넘 사양에는 19인치가 장착된다. 구형 로그는 16~17인치 휠을 달았었고, 현대 투싼ix는 17~18인치 휠을 단다. 티구안도 17~18인치 휠을 장착했고, 4830만원짜리 R-라인에만 19인치 휠이 들어간다.

대시보드는 윈티마에서 보던 느낌처럼 심플하고 간결하다. 복잡한 느낌 없이 필요한 계기가 운전자의 눈에 쏙 들어오고, 내장 마감처리도 깔끔하다. 센터미시어 아래쪽에는 푹신한 우븐 패드를 달아 장거리 주행의 피로감을 줄였다.

캐시카이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디젤 엔진을 얹은 일본 SUV라는 점이다. 그간 디젤 SUV시장은 유럽 브랜드의 독무대였고, 3000만원대에서는 폭스바겐 티구안이 독주했다. 티구안의 올해 판매대수는 르노삼성 QM5에 육박할 정도. 이 독주 구도를 깰 유력한 후보로 캐시카이가 등장한 것이다.

캐시카이는 르노의 1.6 dCi 131마력 디젤 엔진과 닛산 계열사 '자트코'의 무단변속기(CVT)를 조합했다. 현대 투싼ix와 폭스바겐 티구안이 모두 2.0ℓ 디젤 엔진을 얹은 것에 비해 캐시카이는 한 등급 낮은 배기량을 선택했다.

공회전 때의 소음과 진동은 평범한 수준이나, 소음측정 애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한 결과 시속 80km에서의 소음은 72dB였다. 차체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이 큰 것으로 보여 방음대책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캐시카이에서 눈에 띄는 장점 중 하나는 핸들링이다. 동급 경쟁차보다 차체 높이가 낮은 데다 '액티브 엔진 브레이크'와 '액티브 트레이스 컨트롤',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의 탑재로 코너링에서 안정감 있는 차체 움직임을 보여준다. 물론 시승 코스 여건상 시속 80~90km 정도에서 체험한 것이어서 나중에 시승차가 나오면 더 꼼꼼히 체크해볼 예정이다.

/정의혁기자 ferrari@metroseoul.co.kr

홈플러스,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 판매 17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용 선불카드인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는 충전된 금액만큼 PC·스마트폰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이나 게임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 제공

가전업계, 무선 청소기 경쟁 치열

흡입력·배터리 개선 제품 등장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흡입력과 배터리 성능을 높인 무선 청소기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무선 청소기는 선이 없기 때문에 유선보다 사용하기 편하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무선 청소기는 유선 청소기에 비해 흡입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내장된 배터리 효용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무선 청소기는 유선 청소기를 주로 사용하면서 핸디형 제품처럼 간단한 청소에 사용하는 '세컨드 가전'으로 활용됐다. 최근 가전업체들은 이런 단점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모터와 효율성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제품을 선보이며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무선 청소기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약 200W의 흡입력을 갖춘 '모션싱크 코드리스'를 출시했다. 모션싱크는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본체회전' 구조를 통해 민첩하게 회전하고 부드럽게 이동하는 청소기다. 모션싱크 코드리스는 이런 모션싱크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전원 코드는 없애 자유로운 이동과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게 삼성전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유선청소기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흡입력을 위해 고성능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배터리 유지 관리가 쉬운 무선 핸디스틱 청소기를 내놨다. 이 제품은 오랜 충전시간에 비해 사용시간이 짧은 무선 청소기의 단점을 개선해 교체 가능한 '듀얼 리튬 배터리팩'을 제공한다. 35분간 사용가능한 배터리 2개를 통해 최대 70분간 사용할 수 있다.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체가 쉬운 것은 물론 수명이 다 했을 시 청소기의 배터리 교체 비용도 5만원 수준에 불과해 저렴한 비용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테팔이 최근 선보인 '에어포스' 무선 청소기(사진)는 99% 강력한 먼지 제거를 표방했다. 일반 청소기와 동일한 싸이클론 방식으로 많은 양의 먼지에도 필터 막힘이 없이 처음 힘 그대로의 강력한 흡입력이 유지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특허 받은 삼각형 모양의 헤드로 모서리, 가구 밑 등 청소기 어려운 곳까지 깨끗하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다이슨은 올해 초 디지털 모터 V6(DDM V6)를 장착해 유선 진공청소기만큼의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는 'DC62'를 선보였다. DDM V6는 분당 11만번 회전하는 힘으로 초당 15ℓ의 공기를 빨아들이며 기존 자사 무선청소기에 장착된 DDM V2보다 50% 강력해졌다. 15개의 싸이클론이 2단 병렬로 배열된 2중 레디얼 싸이클론 기술로 초미세먼지까지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성능을 갖췄다.

/김형민기자 hkm@metroseoul.co.kr

한국 생산성 낮고 임금은 높아

"싱가포르가 근로시간 더 길어"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으면서 실질 임금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발표한 '아시아 경쟁국의 근로시간·임금·생산성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우리보다 1인당 GDP가 훨씬 높지만 근로시간이 더 길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했으며 일본은 더 짧았다.

아시아 경쟁국의 연간 실근로시간 국제데이터를 보면 2011년 기준 홍콩(2344시간), 싱가포르(2287시간), 한국(2193시간), 대만(2144시간), 일본(1706시간) 순으로 근로시간이 길었다.

또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2012년 기준 자료에서도 싱가포르(2409시간), 한국(2289시간), 일본(1727시간) 순으로 일하는 시간이 많았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2013년 기준 1인당 GDP가 각각 5만5182 달러와 3만7955 달러로 한국(2만5975 달러)을 훨씬 앞서고 있지만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대만은 구매력 기준 소득(한국 3만3791 달러 대 대만 4만1539 달러)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지만 근로시간은 비슷했다.

아시아생산성기구(APO)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근로자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싱가포르와 홍콩이 가장 우위에 있고 이어 대만, 일본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64% 수준에 그쳤다.

/박상훈기자 park@

겨울 해외여행, 로밍으로 즐겨볼까

무제한 데이터·와이파이 로밍 등 서비스 다양…현지에 맞는 요금제 숙지 필요

본격적인 겨울 해외여행 시즌을 앞두고 이동통신사가 로밍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수험생, 겨울에도 따뜻한 피서지를 찾거나 해외 스키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 마련에 나선 것이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해외에서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OnePass)' 대상 국가를 확대했다.

'T로밍 데이터무제한 OnePass'는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로밍 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형 할인 요금제다. SK텔레콤은 이 요금제의 서비스 국가를 기존 135개국에서 미얀마, 보스니아, 브루나이 등 3개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고객은 하루 9000원의 요금으로 138개국에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험생들에게는 SK텔레콤이 제공하는 'T로밍 팅 무한톡'도 제격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로 1일 5000원의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다.

KT도 지난 11일 '와이파이 자동로밍' 서비스 이용가능 국가를 일본에 이어 중국과 대만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존 4일 간 1만원의 요금이 부과되던 '와이파이 자동로밍' 요금제를 1일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제

겨울 해외여행 시즌을 앞두고 이동통신사가 로밍 요금제 국가 확대, 요금할인 등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개를 개편했다.

와이파이 자동로밍 서비스는 최초 한 번의 제휴 네트워크(SSID) 선택만 하면 현지 핫스팟에서 자동으로 접속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 별도 앱을 통해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던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KT는 다음달 31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KT 고객에게 와이파이 자동로밍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아울러 이 기간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KT 고객이 출국 당일 공항 로밍센터에 아시아나 항공권을 제시하면 4일 간 와이파이 자동로밍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하루 1만원의 기본요금으로 전 세계 110개국에서 데이터 로밍을 무제한 제공하고 있다. 해외 로밍이 지원되지 않는 휴대전화(2G폰)를 사용하고 있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로밍 휴대전화를 임대할 수도 있다.

해외여행 시 기존 전화번호로 걸려올 전화가 없다면 현지에서 유심(USIM) 카드를 구입해 이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지에 도착해 공항이나 상점에서 유심 카드를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휴대전화에 갈아 끼우면 바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국내에서 이용하던 번호는 이용할 수 없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겨울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로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로밍 요금제가 무엇인지, 여행하는 국가에서 어떤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미리 파악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현지에서도 효율적인 통신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중소·벤처 대상 '올레 비즈 기가 오피스' KT는 창업(벤처)기업(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운영 비용을 절감해주는 '올레 비즈 기가 오피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레 비즈 기가 오피스는 KT 전화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IT장비 호스팅, 기가급 속도의 네트워크, 고도화된 보안, 통합 관제시스템, 업종별 최적화된 솔루션 등 기업의 ICT 운영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신개념 기업통신서비스다. /KT 제공

10만원대 윈도 태블릿 나왔다

에이서 '아이코니아 W1-810'

국내 처음으로 10만원 대의 윈도 기반 태블릿이 출시된다.

대만 PC 제조업체인 에이서는 윈도 운영체제(OS) 기반의 태블릿 '아이코니아 W1-810'을 19만9000원에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인텔 베이트레일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8인치 IPS H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32GB SSD가 제공되며 64GB를 지원하는 마이크로 SD카드 슬롯도 장착됐다.

전·후면 모두 크림 화이트 컬러로 마감돼 세련미를 높였다. 두께와 무게가 9.75mm와 370g에 불과해 여성들도 핸드백 등에 휴대할 수 있다. 또 오피스 365 프로그램이 기본 제공되고, 에이서 BYOC 클라우드도 무상으로 제공돼 우선으로 음악과 동영상 파일 등을 동기화하고 접속할 수 있다.

최대 8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와 일반 스마트폰용 마이크로 5핀 케이블로도 충전이 가능해 충전 전용 어댑터를 별도 휴대하지 않고서도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박 션 에이서 동북아 총괄 사장은 "윈도 태블릿의 20만원대 벽을 최초로 무너뜨린 아이코니아 W1-810 출시를 계기로 국내 소비자들은 위한 놀라운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기자

직장인 스마트폰 보유 '세계 최고'

우리나라 성인 직장인들의 스마트폰 보유 비율이 주요 24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국제적인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전 세계 24개국 성인 직장인 85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직장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4%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 직장인 304명, 미국 503명, 캐나다 1001명, 인도 509명, 이탈리아 406명, 독일 403명, 영국 403명, 호주 400명, 일본 302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이어 스마트폰 보유비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92%)였고 홍콩(91%), 싱가포르(91%), 태국(91%), 아랍에미리트(8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마트폰 보유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으로 51%에 불과했다.

해외출장을 떠날 때 스마트폰을 갖고 떠나는 비율도 우리나라 직장인은 91%로 가장 높았다. 특히 한국인 중 94%는 스마트폰과 랩톱 컴퓨터 등 모바일 기기를 반드시 갖고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율도 24개국 중 최고였다.

반면 회사에서 모바일 기기 비용을 지급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19%로 주요국 중 최하위였다.

이 밖에 여행 중 모바일 기기 사용과 관련, 가장 짜증나는 것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 가능)에는 '스피커폰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헤드폰 없이 음악·게임·비디오 이용' 55%, '모르는 사람이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을 경우'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영기자

"구글·MS·링크트인 다 나와!"

페이스북 새 웹사이트 개발

페이스북이 개인 사회적 신분을 따로 관리하고 오피스 기능까지 사용가능한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은 페이스북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링크트인 등에 대항하는 '페이스북 앳 워크(Facebook at Work)'를 비밀리에 개발 중이라고 17일 보도했다.

페이스북 앳 워크는 동료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직업상의 연줄을 연결해주는 기능도 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의 페이스북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지만 이용자들이 휴가 중 찍은 사진이나 정치적 설명, 우스꽝스러운 동영상 등과 같은 개인적 관심사나 신상 정보를 직업적 신분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다.

구글의 클라우드 저장·공유 사이트인 구글 드라이브나 MS의 아웃룩 이메일 서비스, 사무용 프로그램 오피스 등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앳 워크는 구글 드라이브나 MS 오피스, 링크트인 등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FT는 페이스북 임직원들이 이 웹사이트를 오래전부터 업무 중에 사용해 왔으며 이를 다른 회사에도 보급하는 문제에 대해 얼마 전부터 내부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전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 기지개 켜나?

오랜 침체 끝 개발호재·외국인투자 등 활기
단기적 현상일수도… 시간 갖고 지켜봐야

금융위기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던 송도 청라 영종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 외국인 전용카지노와 복합리조트 개발 등의 굵직한 호재들에 침체됐던 분위기가 뒤집혔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이달 송도국제도시 3공구에서 분양한 F13-1·14·15블록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가 전 주택형 순위 내 마감됐다.

지난 5~6일 먼저 청약을 받은 F15블록에 832가구(특별공급분 제외) 모집에 3436명이 몰리며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12~13일 실시한 F13-1·14블록 분양에서 1693가구에 4064명이 접수해 2.4대 1로 청약을 마쳤다.

포스코건설이 송도에서 아파트를 공급해 순위 마감에 성공한 것은 2009년 12월 분양한 '더샵 센트럴파크Ⅱ' 이후 약 5년 만이다.

그동안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송도 더샵 그린워크 1~3차', '송도 더샵 마스터뷰', '송도 더샵 하버뷰' 등은 완판됐거나 완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특히 송도 호반베르디움은 4월 분양 직후만 해도 30% 미만의 저조한 계약률을 보였으나 지난달 1634가구 판매를 끝냈다.

송도동 T부동산 관계자는 "각다 책, 아시안게임 등을 계기로 송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무엇보다 기업들의 입주가 잇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고 기존 아파트나 분양아파트에도 활기가 도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5년 만에 순위 내 마감 단지가 나오며 상승 무드를 타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송도에는 이미 둥지를 튼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엔지니어링, 대우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셀트리온, 동아제약, 엠코테크놀러지 등이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고층 빌딩인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입주를 위해 협의 중이거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있다"며 "내년 포스코 자사고 개교 소식에 힘입어 교육수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약세으로 꼽히던 영종하늘도시는 카지노사업이 가시화되면서 때 이른 봄바람이 불고 있다. 스태츠칩팩코리아 이전과 함께 지난 8월 BMW드라이빙센터가 오픈, 텅텅 비었던 상업시설이 북적이는 모습이다.

여기에 국내 최초 문화 예술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 시티가 2017년 개장을 앞두고 오는 20일 기공식을 갖는 것도 호재로 꼽힌다.

이에 따라 영종하늘도시에서 전세 전환을 하지 않고 유일하게 미분양 소진에 나선 한라비발디 아파트의 경우 최근 90% 가까이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관계자는 "개발호재와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에 힘입어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약 800가구를 팔았다"고 말했다.

바이너스 프리미엄이 시들하던 청라지구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와 청라BRT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일부 회복됐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투자이민제, 개발호재, 전세난 등이 어우러져 침체가 심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온기가 도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아직 실물경기가 저조하고 외국인들도 제주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아 본격적인 회복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oop1626@metroseoul.co.kr

'경희궁자이' 테라스 특화평면

GS건설, 저층-최상층 저작권 출원

서울 4대문 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랜드마크 아파트 '경희궁자이'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테라스 세대가 선보인다.

GS건설은 21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가는 '경희궁자이'에 복층형 테라스 평면과 중정형 테라스 평면인 자이 로프트(Xi Loft)와 자이 테라(Xi Terra)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이 로프트는 최상층 테라스 세대를, 자이 테라는 저층 테라스 세대를 각각 통칭하는 명칭이다. 최근 테라스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해 자이만의 차별화된 평면을 기획했다.

기존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는 고급화된 대형 평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자이 로프트는 중소형에 적용, 수요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또 단독주택의 감성을 담아 복층형으로 계획해 다양화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했다.

자이 테라는 종전 상품과는 달리 중정(中庭) 형태의 테라스 공간을 제공한다. 아늑하게 구획된 테라스에서 다양한 활동과 함께 외부 조경을 가깝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S건설이 개발한 자이 로프트와 자이 테라는 현재 저작권 출원을 완료했다. 전용면적 84~116㎡ 타입 저층부와 최상층 15가구에 적용될 예정이다.

조순완 경희궁자이 분양소장은 "최근 마당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최상층과 저층부에 다양한 테라스 평면을 도입했다"며 "도심에서 남과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고 싶은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희궁자이는 GS건설이 서울 종로구 돈의문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도심 직주근접형 아파트다. 지상 10~21층 30개 동, 총 2533가구 중 전용면적 33~138㎡ 108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박선옥기자

중정형 테라스 평면인 '자이 테라' 이미지

한라, 2014 해외사업 워크숍 한라는 지난 11~15일 미얀마(?)에서 2014년 해외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몽원 회장을 비롯한 워크숍 참석자들이 미얀마 본사 사옥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한라 제공

민간임대도 '전대·임차권' 양도 허용

앞으로 임대인(집 주인)만 동의하면 민간임대주택도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임차권 양도나 임대주택 전대를 허용했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에 살다가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려는 사람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 전환되는 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권을 유지하려면 임차인 자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개인 사정 등으로 계속 살 수 없을 때 전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통상 10년)의 절반이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고 매각할 수 있다.

앞으로는 집 주인만 동의하면 민간임대주택도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두탁기자 kbu@

겨울엔 '유자'가 딱!… 활용도 다양

감기 예방은 물론 피로회복 피부미용에도 효과 알려져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유자'를 활용한 메뉴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유자는 '천연 감기약'이라고 불릴 만큼 각종 영양소가 가득 담겨 있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겨울철에 제격인 식재료이다. 실제로 유자의 효능은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유자에는 감의 2배, 레몬의 3배, 바나나의 10배에 달하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유자차를 마시면 발열과 탈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리모넨'이라는 성분은 몸의 염증을 완화하고 기침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피부미용에 좋고 피로를 방지하는 유기산이 풍부하다.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이런 장점으로 환절기나 겨울철 식·음료업계에서 유자를 재료로 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홀푸드 디자이너 '자연원'의 '갓 짜낸 신선한 유자사과'는 물을 넣지 않고 껍질째 그대로 짜내어 풍부하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겨울철 따뜻한 차로 즐길 수 있는 음용식초 '쁘띠첼 미초 레몬유자'는 비타민C 함량(1080㎎)이 기존 음용식초 중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식초 특유의 시큼한 냄새를 줄이고 유자의 함을 강화해 차로 즐기기 좋다. 100% 과일 발효식초로 과즙의 양이 풍부하고 따뜻한 물에 섞어도 레몬과 유자 특유의 향이 오래 간다.

롯데칠성음료의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온장음료인 '한라봉과 유자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건강 과즙차로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또 탐앤탐스 유자 음료 3종은 국내산 유자를 절인 유자청을 넣어 상큼한 과육이 씹히며, 달콤한 유자 향이 가득한 것이 특징이다. 유자차는 뜨거운 물에 유자청을 듬뿍 넣었다. 유자 에이드는 시원한 탄산수를 추가해 톡톡 쏘는 맛을 즐길 수 있다. 유자 스무디는 유자와 우유를 함께 갈아 내어 새콤하고 담백하게 즐길 수 있다.

오가다도 '유자 블렌딩 티 시리즈'를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겨울용 차 음료로 널리 알려져 있는 모과와 유자 성분에 새로운 티백과 원재료를 더해 한국적인 블렌딩 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연원 '갓 짜낸 신선한 유자사과', CJ제일제당 '쁘띠첼 미초 레몬 유자', 롯데칠성음료 '한라봉과 유자레몬'(왼쪽부터)

/정영일기자 ams@metroseoul.co.kr

강강술래 "11월 푸짐한 경품 챙기세요~"

킹스베리·면도기세트·추천도서 선물
홈페이지에 신청글 남기면 참여가능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기력을 준비하며 마음의 양식을 쌓는데 도움을 주는 추천도서와 킹스베리·면도기세트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도서출판 갈벗의 추천도서인 '작아도 크게 버는 골목가게의 비밀'은 3000명의 골목가게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이템 선정 등 알짜정보는 물론 각종 정부지원 창업자금 대출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전략서다.

또 '위험한 자신감'은 자신감을 강요하는 현대사회를 분석하고 자신감이 곧 성공의 만능열쇠가 아님을 보여주는 한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진짜 실력임을 증명하고 이를 키우는 법을 알려준다.

피로회복·노화방지에 좋은 명지대 산학협력단(B1기업 명지생활건강)이 만든 '명지 아로니아 킹스베리(1세트·23만원)'도 증정한다. 색소·방부제 첨가물을 일체 넣지 않았고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의 7배, 포도의 80배 이상 함유돼 성인병 예방에 좋다.

7중 날을 탑재했고 가드바에는 41개의 볼록형 보양 홈이 있어 면도시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세척이 용이한 도루코리빙의 '페이스 세븐(PACE 7)'도 선물한다. 윤활밴드엔 천연 아르간 오일과 금잔화 추출물이 함유돼 있어 촉촉한 피부 유지를 도와준다.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12월 3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영일기자

같은 수원지 생수라도 값은 달라

소시모, "미네랄 함량 비슷해도 가격차 1.6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수 제품은 미네랄 함량이 비슷해도 판매회사별로 가격차가 크고 같은 수원지의 제조원이라고 해도 미네랄 함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세심한 비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이 국산 일반생수 9개, PB제품 9개, 수입생수 4개, 먹는해양심층수 3개 등 총 25개 생수의 미네랄(칼슘·칼륨·나트륨·마그네슘) 함량과 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원지가 같은 11개 제품의 가격은 실제 미네랄 함량과 관계없이 판매원에 따라 차이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 조사 결과 수원지가 충북 청원군 미원면 성대리 제조원도 씨에이치 음료로 같은 '롯데 아이시스 8.0'과 '홈플러스 맑은샘물'의 미네랄 함량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홈플러스 맑은샘물이 100㎖당 27.0원, 롯데 아이시스 8.0이 38.9원으로 가격은 1.4배의 차이가 났다.

또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제조사 해태음료)가 수원지인 '이마트 봉평샘물 640'은 '강원 평창수'보다 미네랄 함량은 더 높고 가격도 역시 1.4배나 비쌌다.

수원지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백학음료) 제조원인 '롯데 아이시스 평화공원 산림수', '초이스엘 샘물', '참바웃음 맑은샘물'도 미네랄 함량은 비슷했지만 가격은 롯데 아이시스 평화공원 산림수에 비해 참바웃음 맑은샘물이 1.3배, 초이스엘 샘물은 1.6배 비쌌다.

수입 생수와 국산 생수의 가격 비교 결과 수입 생수 중 국산 브랜드인 '백산수'를 제외한 '볼빅', '에비앙', '피지워터'의 평균 가격(218원)이 국산 제품(38원)보다 5.7배 높았다.

/정영일기자

김치 효능 담은 어린이 전용 제품 눈길

식이 섬유·비타민·무기질 풍부해 주목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치의 효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들은 김치 먹기를 꺼려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치의 우수한 영양과 효능을 담은 김치 유산균 제품이나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김치 등이 각광받고 있다.

CJ제일제당에서 내놓은 '피부 유산균 CJLP-133'은 김치에 존재하는 3500여 개의 유산균 중 133번째 유산균이다. 가려움증 등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준다. 김치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산균을 사용해 서양인에 비해 2~3m 긴 한국인의 장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강한 생명력으로 한국인에 딱 맞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대상웰라이프도 식약처로부터 섭취 후 피부 가려움이 감소하는 기능성을 인체시험으로 인정받은 김치 유산균을 적용한 '피부생성 락토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유산균 전문가 강국희 교수와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김치에서 분리한 100% 식물성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다. 섭취하기 쉬운 분말형으로 1일 섭취 분에 유산균 101억 마리가 함유돼 있다.

쎌바이오텍은 '듀오락 베이비'는 생후 36개월의 유아 전용 제품으로 분유나 이유식에 타서 먹을 수 있는 분말 형태이다. 부원료로 김치 유산균이 함유돼 있어 아이들의 면역력 강화를 돕는다.

어린이 전용 김치 완제품도 있다. 대상FNF 종가집의 '어린이 김치'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함량이 기존 제품의 25% 수준으로 들어 있는 고급 고춧가루를 더해 매운맛을 줄였다. 파·마늘·생강 등이 씹히지 않도록 완전히 갈아 넣어 어린이들이 거부감 없이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정영일기자

뉴스&뉴스

남양유업, 국내 최초 '동결건조(FD) 커피' 수출

● 남양유업(대표 이원구)이 국내 최초로 원료형 동결건조(FD, Freeze-Dried) 커피를 해외에 수출한다고 17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17일 이달 초 폴란드의 인스탄타社와 약 100만 달러 규모의 원료형 FD커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결건조 방식은 국내에서 남양유업과 동서식품 등 국내 2개 제조사만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단 15개 국가만이 생산하고 있다.

참이슬, 도수 낮춰 17.8도 리뉴얼 출시

●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어 인크'을 도수를 기존 18.5도에서 0.7도 낮춘 17.8도로 바꿔어 선보인다.

25일부터 판매되는 리뉴얼 '참이슬'은 기존의 특허받은 천연 대나무활성숯 정제공법 보다 대나무숯을 증량해 업그레이드된 자연주의 정제공법으로 목 넘김은 더 깔끔하게 향은 더 부담 없이 개선해 숙취가 없는 깨끗한 참이슬의 맛으로 품질을 향상시켰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참이슬 클래식'은 기존 도수를 유지한다. 이와 별도로 27일부터는 진로 최초의 증류식 소주 도수인 35도를 구현한 '진로 1924'도 출시한다.

수능 끝… "헤어스타일 바꿔볼까"

웨이브 단발로 세련미 어필 스트레이트는 청순한 느낌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외모 가꾸기에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헤어는 조금만 다르게 연출해도 확실한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보다 쉽게 스타일 변신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단발머리나 동여맨 헤어스타일을 고수했던 학생들은 색다른 스타일에 도전해봐도 좋겠다.

고등학생 티를 벗고 싶다면 웨이브 단발로 성숙함을 어필해 보자.

턱 선보다 살짝 올라간 길이로 커트한 뒤 층을 주면 한결 가벼운 느낌을 줄 수 있다. 또 눈을 살짝 가리는 길이로 앞머리를 만들면 목선이 훨씬 길어 보인다. 머리를 감은 뒤 소량의 왁스를 손바닥에 비벼 머리를 구기듯 바르면 자연스럽게 뜬 단발머리가 완성된다.

미쟝센의 '헤어 쥬레 볼륨 웨이브'는 젤리 타입의 왁스로 손상된 모발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한다. 특히 푸딩 같은 형태로 녹아 들어 뭉침 없이 굳지 않는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Oal(오늘)의 스타일 메이커 헤어 쥬 왁스는 크림 타입으로 적당한 광택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준다. 웨이브 컬의 방향을 잡아주면서 모발 끝부터 정수리 방향으로 아래서 위로 쥐어 주듯 세팅하면 입체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미디엄 길이의 생머리는 쇄골 라인에 맞춰 층 없이 커트하고 밝은 갈색으로 염색하면 한결 세련돼 보인다. 이때 머릿결이 푸석하면 오히려 지저분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헤어에센스나 미스트를 수시로 뿌려 차분하고 윤기있는 머릿결로 가꿔주는 게 좋다.

츠바키의 '샤이닝 헤어 워터'는 동백 오일이 함유된 에센스 워터로 거친 모발 표면을 건강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준다. 매일 샴푸 후 스타일링 전에 사용하면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달라진 모발 감촉을 경험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더샘의 '실크 헤어 아르간 모이스처 미스트'는 실크 아미노산·케라틴·콜라겐 등이 들어 있는 수분 미스트로 모발에 실크 보호막을 형성한다. 미스트를 뿌린 뒤 드라이기로 스타일링할 때 모발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준다.

/[illegible] 기자

어깨 포인트 보여 '굿샷'

초보 골퍼를 위한 아이디어 제품 등 인기 남은 거리 알려주는 집중력 도움 장갑도

최근 골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초보 골퍼'를 위한 아이디어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기능성 제품부터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한 아이템까지 다양하다.

겨울은 골프 비수기지만 골프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기다. 지금부터 실력을 쌓으면 따뜻한 3~4월에는 필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와이드앵글의 '3Wings 티셔츠'(사진)는 골프 초보자는 물론 구력이 오래된 골퍼도 자주 범하는 '헤드업(스윙 시 고개를 드는 현상)'을 방지하는 똑똑한 제품이다. 어깨 절개선 부위에 '포인트'를 줘 스윙이 끝날 때까지 이 포인트에 시선을 고정하면 자세 흐트러짐 없이 안정된 스윙을 할 수 있다.

겨울 라운딩 시에는 두툼한 점퍼보다 가벼운 다운 재킷을 입는 게 활동적이다. 와이드앵글의 스트레치 경량 다운은 사방 스트레치 원단을 사용해 움직임이 자유롭고 스윙과 어드레스 자세에 가장 적합한 패턴을 적용해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도와준다.

남은 거리 알려주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골프 장갑도 눈길을 끈다. 뱀앤글러브는 '스카치 골프 장갑'에 근거리 무선통신 NFC 기능의 전자칩을 탑재, 장갑에 스마트폰을 가까이 대면 골프장의 샷 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10도의 과학'으로 발명 특허를 획득한 '이글아이드 골프화'는 비거리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아이템이다.

평소에는 일반 골프화처럼 신다가 필드에서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면 골프화 안쪽이 10도 가량 밑속으로 들어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자연스럽게 A라인을 만들어 주면서 안정된 자세를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스윙을 할 때도 신발이 90도각이 유지되기 때문에 안정된 임팩트와 티샷이 가능하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올 겨울 '바이커 부츠'가 대세 17일 서울 중구 명동 금강제화 매장에서 모델들이 겨울철 패션 아이템인 '바이커 부츠'를 선보이고 있다. 올겨울 유행인 바이커 부츠는 남성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벨트 스트랩 등의 장식이 사용돼 여성스러운 감성이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금강제화 제공

잇츠스킨 달팽이크림, 해외서 각광

잇츠스킨의 달팽이크림 '프레스티지 끄렘 데스까르고(Prestige cream d escargot)'가 해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최근 중국·일본 관광객들이 여행할 때 반드시 구매하는 제품으로 입소문이 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올해 중국 국경절 롯데면세점이 집계한 화장품 판매추이를 보면 '달팽이크림' 인기 영향으로 브랜드 순 화장품으로는 유일하게 TOP 5 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특히 중국 최대 온라인몰 타오바오와 T몰에서도 인기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난 광군절 롯데닷컴 글로벌관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시아·러시아·중남미 등 잇츠스킨이 진출한 20여 개국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 5월에는 '2014년 몽드셀렉션 최고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프레스티지 토니끄 데스까르고' '프레스티지 로씨옹 데스까르고' '프레스티지 마스크 데스까르고' 등 다양한 스킨케어 화장품을 비롯해 최근 베이비 제품까지 출시하며 다양한 니즈에 부합되는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프레스티지 끄렘 데스까르고'는 달팽이의 몸을 항상 보호해주는 달팽이 점액 여과물 1만2600㎎(농도 21%)이 포함돼 있으며 피부조직의 수분을 잡아줘 피부 세포 속의 수분 증발을 막아준다. 또 세포조직 증식과 상피세포 성장을 [illegible] 분이 심한 피부에 특효가 있다. 이외에도 주름개선과 미백 인증 성분인 일부틴과 아데노신이 함유돼 있다. 올해 500만 개 이상 판매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llegible] 기자

온라인마켓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물량·할인 공세 홍보전

온라인 유통업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돌입한다.

옥션은 오는 28일까지 '에브리데이' 행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점의 직구 상품을 준비했다.

상품을 최대 70% 할인을 비롯해 무료배송·할인쿠폰 10만 장의 혜택을 제공한다.

18일에는 프리미엄 패딩을 주제로 캐나다구스, 익스페디션 화 노비스 남녀 패딩을 판매한다. 19일에는 아동용품인 레고와 크록스 아동 부츠, 20일은 해외 유명 브랜드 골프용품을 각각 선보인다. 이 외에도 코치 레베카 지삭 나이키조던 등 인기 브랜드가 준비됐다.

지경민 옥션 온사이트마케팅팀 부장은 "직구가 대중화되면서 지난해 인기 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6개월 전부터 인기 브랜드와 상품 소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G마켓은 18일부터 28일까지 '슈퍼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으로 지정하고 직구 상품을 최대 67% 할인 가격에 선보인다. 넥서스7 구글 공식 리퍼비쉬'(8GB)는 42% 할인된 6만9000원에, '일밤 아르떼쥬(50㎖)'는 40% 할인된 2만9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11번가는 17일부터 30일까지 해외 쇼핑 블랙프라이데이 기획전을 열고 특가 상품을 포함해 의류 잡화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

당신이 선택한 영웅, 세상이 기다린

ZORRO
THE MUSICAL
Final Ticket Open 11.5
2014.12.5 ~ 2015.1.3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FEATURING THE WORLD FAMOUS HITSONGS OF THE GIPSY KINGS | BASED ON AN ORIGINAL STORY BY ISABEL ALLENDE

소리로 마음나누고 희망 전파

제약업계, 다양한 음악회 통해 사회 공헌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 제약업계의 음악회를 통해 소리로 마음을 나누는 활동이 눈에 띈다.

사랑 가득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정아름기자 hzu@metroseoul.co.kr

◆지속적인 지원으로 사랑 전해

한국얀센의 사내 합창 동호회 '나눔소리'는 회사가 후원하는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사진)에 직접 참여했다. 드림오케스트라는 소외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활동 중 하나다. 이들은 매년 아이들에게 재미와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이런 공연에 '하나된 목소리로 나누는 삶'을 모토로 조직된 나눔소리가 함께한 것이다. 나눔소리는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공연과 기부·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JW중외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도 자사가 후원하는 홀트 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로'의 정기 공연을 매년 열고 있다. 영혼의 소리로는 지난 1999년 국내 최초로 결성된 중증 장애인 합창단. 최근 열린 공연에서는 손종남 선생의 지휘로 지난 1년 동안 연습한 '날 라리라지야'와 '마법의 성' 등을 비롯한 10여 곡의 노래로 공연을 했다. 특히 공연은 지난해에 이어 작곡가 주영훈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팝페라 그룹인 라스페란자가 게스트로 출연해 무대를 더욱 빛냈다.

현대약품은 '하트앤 콘서트'를 통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콘서트는 현대약품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인기 국악인 남상일, 여성 다악듀오 모이티에 등 매김 실력파 음악가들이 공연을 펼친다. 현대약품은 현장의 감동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유스트림으로 온라인 생중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콘서트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하트앤 메세나 회원'도 모집 중이다.

유한킴벌리 한국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와의 협업 프로젝트인 '마야프 영상물 콘서트'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공연은 젊은 예술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는 공연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 소외계층에 꾸준히 환원하고 있다.

수능 후 '성형'… 충분한 고민 필요

이벤트보다 병원·전문의 정보 꼼꼼히 따져야

수능이 끝나고 겨울로 들어서는 이맘때가 되면 성형외과를 찾는 어린 환자의 비중이 늘어난다. 수능을 끝낸 수험생이나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수술을 받으려는 학생들이 병원을 찾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분한 고민 없이 수술을 받으면 만족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술 자체를 후회하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한 후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 면접과 같이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있다면 수술 시기를 신중히 고민해야 하고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신체 콤플렉스를 유발하는 요소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또 전문의에게서 수술 정도와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부모와 상의를 거쳐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처음 성형을 할 때는 과도한 변화보다는 본인의 이미지에 어울리도록 목표를 잡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목표를 잡기 어렵다면 부위별로 이상적인 롤모델을 선택해 상담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이벤트나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수능이 끝난 후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주변의 분위기나 이벤트에 따라 수술을 결정하면 후회가 따를 수 있다.

이현택 바노바기성형외과 원장은 "처음부터 너무 여러 수술을 받으려고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병원을 결정할 때는 병원 규모와 의료진의 이력 등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모발이식에도 '골든타임' 있다

효과적인 탈모 치료 위해 전·중·후 관리 철저

탈모 환자가 늘면서 모발이식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탈모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에도 성공을 부르는 '골든타임'이 있다.

먼저 모발이식 전의 골든타임은 '1년 내외'다. 이는 탈모의 적극적인 조기치료를 위한 시간을 의미한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탈모가 확산되고 최악의 경우 모발이식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모 확진 후 1년 내외는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주사치료 등을 통해 최대한 탈모 진행을 늦춰야 한다.

모발이식을 할 때 필요한 골든타임은 2~3시간 내외다. 이는 이식할 모낭의 수명을 말하는데 모발이식은 모발 가닥을 이식하는 것이 아닌 모발 주머니인 모낭을 이식하는 시술로 모낭은 상온에서 그 기능을 잃기 쉽다. 즉 채취한 모낭을 상온에 두는 시간과 생착률은 반비례하고 이에 따라 모낭은 최소 2~3시간 이내에 이식해야 한다.

아울러 모발이식 후의 골든타임은 72시간이다. 이식한 모낭이 생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으로 이 시간 동안은 이식 부위를 긁거나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음주와 흡연 역시 생착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시술을 결정할 때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시술 방식과 모발의 방향·디자인·밀도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모발이식 후에도 꾸준한 사후관리를 통해 탈모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힘써야 한다. /황재용기자

뉴스&뉴스

일반의약품 홍보 강화

●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이 최근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동국제약은 올해부터 대한약사회의 손잡고 약사의 위상을 높인 약사들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대한약사 동국대상'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약국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복약지도 활성화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또 '정맥순환 장애 바로 알리기 캠페인'과 '부부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재무부서장협의회장에

● 오명희(사진) 이화여대 의료원 사무국장이 최근 열린 '2014 전국 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 추계 정기총회'에서 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대학병원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설립돼 현재 전국 46개 대학병원 재무부서장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 회장은 회계와 재무는 물론 구매와 복지 등 병원 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지난해에는 '자랑스러운 이화경영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에네스카야의 터키요리

● 터키 유생 '에네스 카야'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 강남점에서 열린 터키 요리축제에 참석해 터키에서 초청된 주방장들과 함께 터키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손진영기자 son@

'예능 블루칩'에서 다시 토이로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가수 유희열의 원맨 프로젝트 토이가 7년이라는 긴 공백기 끝에 18일 오전 0시 정규 7집 '다 카포(Da Capo)'를 발표했다. '다 카포'는 '처음으로 돌아가 연주하라'라는 뜻의 음악 용어다. 유희열은 앨범 타이틀처럼 처음 토이로 음악을 시작했던 순간으로 돌아가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16년 만에 찾아온 수능 한파로 유난히 추웠던 지난 13일 오후 유희열은 '다 카포' 청음회를 열었다. 그는 "내 음악을 가지고 누군가와 이야기 하는 게 처음이라 민망하다. 동아리방에서 모여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음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7년 만에 돌아온 '토이' 유희열

처음으로 돌아가 연주한다는 뜻의 '다 카포' 초심 음반
타이틀곡 성시경의 '세 사람' '좋은 사람' 10년 후 이야기

◆ 초심으로 돌아가다

유희열은 지난 2009년부터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진행자로, SBS 'K팝 스타'의 심사위원으로 맹활약 중이다. 또 최근에는 tvN '꽃보다 청춘'을 통해 '예능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최근 몇 년 사이 원하든 원치 않든 TV에 얼굴을 많이 내밀고 있다. 2001년 심야 라디오 DJ시절 잠깐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5집 '페르마타'를 만들었다. '잠시 쉼'이라는 뜻의 '페르마타'였는데 이렇게 오래 쉴 줄 몰랐다(웃음). 이후 2007년 6집 '땡큐'를 만들었을 때 토이뮤직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 그때 큰 충격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음악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 음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처음 음악을 했을 때의 떨리는 마음을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에 '다 카포'라고 앨범 타이틀을 정했다. 예전 같은 음악으로 만든 음반이다."

토이 음반에서는 유희열이 직접 노래하기도 하지만 가창은 대부분 다른 아티스트가 맡는다. 이에 대해 그는 "나는 노래를 쓰는 작가이자 감독이고 가수는 배우"라고 표현했다. 이번 앨범에는 김동률·다이나믹듀오·빈지노·크러쉬·자이언티·선우정아·권진아·김예림 등 유희열과 새롭게 호흡을 맞춘 뮤지션의 참여가 눈길을 끈다. 특히 3번 트랙 '굿바이 선, 굿바이 문'을 부른 악동뮤지션 이수현은 이제까지 유희열이 작업한 아티스트 중 가장 어린 가수다.

"'굿바이 선, 굿바이 문'은 뜨거운 안녕의 심 목 학습관 같은 노래다. 1980년대 레트로 뉴웨이브 스타일의 곡으로 진짜 옛날 악기로 녹음했다. 건반연주자 손성경와 오류동 집에 가면 골동품 같은 옛날 악기들이 쌓여있는데 거기서 녹음했다. 둘 다 좋아하는 가수 F.R 데이비드의 '워즈'를 재현해보고 싶었다. 이 노래의 숨겨진 부제는 '사실 '서울천사'의 시 다 일본 만화를 좋아해서 지구를 지키는 소녀의 주제곡을 상상하며 만든 노래인데 윤상이 크리스마스 노래 같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규호에게 연락해 평소 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동화적인 가사를 함께 썼다. 내 주변 여가수들은 다들 나이가 있어서 동화 같은 가사를 소화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였다(웃음). 그러던 중 매니저가 이수현을 추천해줬고 YG 대표 양현석이 흔쾌히 승낙해서 이 곡을 완성할 수 있었다."

◆ 가장 유희열다운 음악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 앨범이지만 그 안에는 익숙한 이름도 있다. 유희열과 꾸준히 작업을 해오고 있는 가수 성시경은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세 사람'을 불렀다.

"사람들이 토이표 발라드를 듣고 싶다고 했다. 그게 뭘까 고민했더니 청춘 드라마 같은 느낌의 노래였다. 하지만 내가 마흔네 살이라 그런 감성을 살리기 어렵더라(웃음). 다른 가수들이 발라드를 써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는데 비슷한 이유로 늘 거절해왔다. 그래서 '세 사람'을 썼을 때 정말 기뻤다. '내가 제일 잘 하는 스타일이 바로 이런 곡이구나'를 느꼈기 때문이다. 내 발라드는 울면서 달리기다. 슬프지만 절대 눈물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절제된 감성이다. 일본으로 치면 이와이 슌지 감독의 '4월 이야기' 같은 느낌이다. 사실 이 곡은 가사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반대가 심했다. '세 사람'은 철저하게 드라마 시놉시스를 쓰듯이 만들었다. 2001년 발표한 노래 '좋은 사람'의 10년 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된다. '좋은 사람'의 그들이 자라 30대가 됐고 그 중 두 사람이 결혼하는 날을 마음 아프게 지켜보는 내용이다. 이 노래는 가장 나다운 곡이다.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한 건 아니지만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 좋아했던 사람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좀 이상하다. 나도 그런 기억이 있어서 만든 노래다."

초심으로 돌아가 만들었다는 이번 앨범에서 그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아날로그로의 회귀다. 그는 '굿바이 선, 굿바이 문'도 디지털이 아닌 옛날 악기로 녹음했듯 악보 역시 다 손으로 직접 썼다고 밝혔다.

"이번 앨범에서 가장 큰 의미는 손으로 악보를 쓴 곡들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나는 원래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악보를 그렸는데 언젠가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음악을 데이터화시켰다. 그러다 보니 멜로디보다 사운드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건 내 전문분야가 아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건 피아노 옆에 앉아서 곡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손으로 악보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다 카포'는 내가 가장 잘 하는 것을 집약한 앨범이다. 나는 대중을 고려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선보이는 일을 해오고 있다. 토이 음악의 시그니처(특징)는 바로 '백화점식 음악'이라는 것이다. 나는 라디오 DJ가 돼서 선곡표를 짜듯이 앨범을 구성해 노래를 들려준다. 토이 음악을 김연우나 성시경의 노래로 알아도 상관없다. 그건 내가 대본을 잘 썼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지민 기자 디자인/김아람

"우리의 정체성은 멋과 친근함이죠"

7인조 그룹 갓세븐(JB·마크·주니어·잭슨·영재·뱀뱀·유겸)이 데뷔 약 1년 만인 18일 오전 0시에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했다.

갓세븐은 17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악스홀에서 정규 1집 '아이덴티파이'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신곡을 공개했다.

쇼케이스의 포문을 연 '볼륨을 올려줘'는 이들이 앞서 선보였던 '걸스 걸스 걸스', 'A'와는 다른 느낌의 곡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보이스 루프 기법이 음악 전체의 분위기를 이끄는 곡으로 '같이 즐기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날 갓세븐은 쉬지 않고 신곡 무대를 이어갔다. 이어진 '걷자'는 옛 사랑을 잊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자는 마음을 담은 곡으로 빠른 힙합 비트에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다. 세 번째 곡으로 선보인 '쉬즈 몬스터'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자를 괴물에 비유한 노래로 어반 힙합 비트를 바탕으로 한 R&B 멜로디의 세련된 곡이다.

이번 앨범은 갓세븐이 정상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다. 힙합 비트에 위트 넘치는 가사가 귀를 사로잡는 타이틀곡 '하지하지마'는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그룹 갓세븐(JB, 마크, 주니어, 잭슨, 영재, 뱀뱀, 유겸)이 17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 악스코리아에서 열린 첫 정규앨범 '아이덴티파이(Identify)' 프레스 쇼케이스에서 멋진 공연을 펼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갓세븐, 데뷔 1년 만에 정규1집 '아이덴티파이' 발표
타이틀곡 '하지하지마', 짝사랑으로 괴로운 마음 노래

리가 부르고 싶었다"며 "우리의 정체성은 무대 위에서 멋은 있지만 너무 멋있지는 않은 것이다. 무대 밖에서는 친근함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갓세븐"이라고 설명했다.

데뷔 당시 마샬아츠 트레킹(무술을 접목한 퍼포먼스용 댄스)을 들고 나온 갓세븐은 '하지하지마'에서는 힘을 뺀 포인트 안무로 팬들을 공략한다. '하지하지마'는 좋아하는 여자가 자꾸 장난을 쳐서 애가 타 괴로우니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다. 주니어는 "가사를 표현한 안무가 특징"이라며 "끌어안고 싶은 마음을 웨이브 댄스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주니어의 말에 잭슨은 자리에서 일어나 즉석에서 안무를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뱀뱀은 "1위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며 "'하지하지마'는 2PM 우영이 형도 갖고 싶어 했던 노래다. 많은 선배들이 이 노래를 원한 걸로 알고 있다"고 신곡을 자랑했다. JB 역시 "1위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다"며 "노래가 좋으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달린 것 같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지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지드래곤 'YG 힙합 프로젝트1' 출격

호흡 맞출 아티스트는 '베일'

YG 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지난 14일 예고한 힙합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인공은 빅뱅의 지드래곤이었다.

YG는 17일 오전 0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YG 힙합 프로젝트1'의 포스터 속 지드래곤의 얼굴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YG 힙합 프로젝트1'의 음악은 오는 21일 오전 0시에 공개되며 두 명의 YG 소속 뮤지션이 참여한다. 팬들은 첫 번째 멤버 지드래곤과 호흡을 맞출 아티스트가 누구인지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고 있다.

YG는 첫 번째 프로젝트에 이어 다음달 2일 오전 0시에 'YG 힙합 프로젝트2'도 선보인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는 총 3명의 뮤지션이 참여할 계획이다.

1990년대 말 힙합 레이블로 출발한 YG는 지누션·원타임·빅뱅·투애니원·마스타 우 등 힙합 장르의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을 주로 배출했다. 최근에는 엠넷 '쇼미더머니'에서 우승을 한 그룹 에픽하이 멤버 바비와 비아이를 비롯해 그룹 위너의 송민호 등이 YG의 신흥 래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지민기자

실력파 걸그룹 마마무 컴백

4인조 실력파 걸그룹 마마무가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다.

마마무는 21일 신곡 '피아노맨'을 발매한다. 신곡 발표에 앞서 17일 정오에는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데뷔 당시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았던 마마무는 이번 신곡에서 한층 발전한 퍼포먼스에 도전한다. 뮤직비디오에는 보이그룹 B1A4의 멤버 공찬이 주인공 피아노맨으로 등장한다. 마마무 멤버들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공찬을 유혹하며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다.

'피아노맨'의 티저 영상과 뮤직비디오는 '갓 세븐틴 어 나이트', '레드불렛', '바 내쥬얼' 등을 연출하고 걸스데이·크레용팝 등과 함께 작업한 메타올로지 프로덕션의 권순욱 감독이 참여했다.

/김지민기자

장기하와 얼굴들 앙코르 무대 확정

서울 공연 추가… 팬들이 원하는 노래 선곡 밝혀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앙코르 공연 '장얼의 마음'을 개최한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소속사 두루두루amc는 17일 "장기하와 얼굴들의 정규 3집 '사람의 마음' 발매 기념 전국투어 서울 공연이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팬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서울에서 앙코르 공연 '장얼의 마음'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서울 마포구 롯데카드 아트센터 아트홀에서 진행된 '사람의 마음' 공연은 수용 인원이 적은 관계로 현장을 찾은 팬들이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번 앙코르 공연은 객석 규모를 늘려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다음달 27~28일 이틀간 개최된다.

장기하와 얼굴들은 "오랜만에 나온 앨범을 기념해 단독공연으로 전국 일주하고 연말에는 좀 쉬어보자는 심산이었다"며 "막상 공연이 시작되고 보니 무대가 매우 즐겁다. 마침 서울 의 8회차 공연이 끝나자 앙코르 요청이 쇄도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에는 특별히 장기하와 얼굴들과 관객들이 함께 만든 세트리스트(무대 공연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트리스트 참여 방법은 공식 팬 카페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들 중 공연장에서 듣고 싶은 노래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한편 서울 공연과 대구·대전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장기하와 얼굴들은 오는 22일 전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다음달 6일 부산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에서 전국 투어의 열기를 이어간다. 장기하와 얼굴들은 이번 전국 투어가 마무리되는 대로 앙코르 공연 준비를 할 계획이다.

/김지민기자

Handel
Messiah
Beethoven
Symphony No.9
Choral

무료신문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

2014. 11. 27(목)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metro　주관

후원 동국제약　목동병원　SPC　KDB대우증권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박광현 '품절남' 된다

내달 7일 일반인 여성과 웨딩마치

배우 박광현(사진)이 새 신랑이 된다.

박광현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박광현이 다음달 7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더 라움에서 2살 연하의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17일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예비 신부는 교육계 종사자로 두 사람은 2년 전 지인 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이어오다 올해 6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박광현은 예비신부에 대해 "무엇보다 좋은 품성을 지녔고 배려하는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다양한 운동을 좋아하는 여성으로 같은 취미를 가졌다는 점에도 끌렸다"고 말했다.

박광현은 지난 9월 추석특집으로 방송된 KBS2 '나의 결혼 원정기' 출연이 결혼을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교제 중이었지만 당장 결혼에 대해서는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촬영하는 동안 카메라 밖에서 결혼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많이 생각했다"며 "9월 말 촬영을 다녀온 직후 여자친구에게 결혼하자고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혼 후 가장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일할 계획이다. 연기뿐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등 다방면에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결혼식 주례는 배우 이순재, 사회는 성우 안지환이 맡는다. 축가는 가수 김원준과 유리상자의 이세준이 부를 예정이다. 두 사람은 국내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후 12월 말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어벤자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계진기자 enstan@

제2의 악동뮤지션·이하이는?

'K팝스타' 시즌4 출격…3대 기획사 색깔 경쟁

양현석·박진영·유희열, 국내 3대 기획사 대표가 SBS 'K팝스타4'를 통해 각자만의 뚜렷한 색깔을 드러낼 예정이다. 1라운드부터 각 기획사의 캐스팅 매니저가 참여하는 것이다.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은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행사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노래보다는 스타로서 재능 있는 사람을 뽑는다"며 "가수로 데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K팝스타'다. 이미지 관리하는 연예인이기 전에 우리는 기획사 대표의 시각으로 솔직하게 평가 한다"고 심사 주안점을 설명했다.

이어 "시청자와 차이가 있겠지만 참가자들이 데뷔해서 인기를 얻는 과정을 보는 것이 큰 재미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JYP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은 "자연스러운 친구"를 캐스팅 기준으로 꼽았다.

그는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우리는 노래를 너무 잘 부르려고 해서 탈락하기도 한다. 인위적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무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테나뮤직의 유희열은 지난해 'K팝스타3'에 처음 합류해 샘 김과 권진아를 캐스팅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권진아와 샘 김이 저희 회사에 들어왔을 때 뭘 해줘야 할지 몰라 일단 짐부터 사줬다"며 "박진영에게 연습 시간표도 구했는데 회사 인력이 부족해서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샘 김과 권진아 숙소에 각각 방이 하나씩 된다. 월세가 아깝다"며 "집에서 오순도순 음악 이야기하면서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둘 다 기타를 연주하니까 이왕이면 피아노를 치는 친구였으면 한다"고 웃음을 자아냈다.

'K팝스타'는 지난 4년 동안 참가자들이 가요보다 팝을 부르는 비중이 높아 '팝스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양현석 심사위원은 "스태프와 심사위원이 가장 많이 갈등하는 부분"이라며 "'K가요스타'가 아니다. 참가자 성향이 다르다. 'K팝스타'는 유독 해외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데 한국말이 서툰 이들에게 가요를 강요하는 건 마치 '한국 음식만 먹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런 비판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위원도 "뿌리를 공부해야 진짜를 알 수 있다"며 "흑인음악이 국내에 들어온 건 20년 정도다. 아직 우리나라 사람이 그 음악을 완전히 소화하는 경우는 드물다. 가요만으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층 더 막강한 참가자들로 자신감을 내비친 'K팝스타4'는 오는 23일 일요일 오후 4시50분에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metroseoul.co.kr

박진영 양현석 유희열 /SBS 제공

'장보리' 오연서 재능기부

내년 적십자회비 모금 운동 참여

배우 오연서(사진)가 취약 계층을 위한 재능기부에 나섰다.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연서는 지난 11일 2015년 적십자회비 모금 포스터와 홍보 영상 촬영, 라디오·전화용 음원 녹음에 참여했다.

이날 촬영은 2015년 적십자회비 모금의 슬로건인 '적십자회비 사랑을 켜면 희망이 커집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한 기부자·봉사자는 물론 그 수혜자들과 함께했다. 오연서의 따뜻하고 밝은 이미지가 후원의 가치를 더 높였다는 평가다.

오연서는 홍보대사로 활동하기 전부터 적십자를 통해 다방면에 후원해왔으며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드라마 촬영 중에도 청소년적십자 RCY 인터뷰, 국토대장정 나눔 로드 대학생 격려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오연서는 "적십자회비는 6·25 전쟁 후 피폐화된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정통 깊고 투명한 모금 방식"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활동에 참여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연서는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 종영 이후 MBC 판타지 로맨스 사극 '빛나거나 미치거나'를 차기작으로 결정했다. 내년 1월 시청자를 만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2014 대중문화 '대세' 표창 받는다

올해 국내 대중문화계의 대세들이 17일 오후 6시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201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201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 예술인의 위상을 높이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포상제도다. 공적 기간, 국내외 활동·업적, 기여도, 사회공헌에 따라 문화 훈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으로 나뉜다.

문화훈장 수훈자 '은관'으로는 드라마 작가 박정란·코미디언 송해·배우 최불암, '보관'으로는 성우 김수일·가수 엄국환·배우 최은희가 선정됐다.

대통령 표창은 고(故) 김광석·배우 사미자·모델 이재연·연주자 이유신·제작자 홍승성·프로듀서 김영희·작곡가 유영진이 수상했다. 가수 진미령·배우 이민호·김수현·전국환·드라마 작가 박지은·방송인 신동엽·프로듀서 김대경·나영석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민호와 김수현은 한류를 이끄는 양 축으로 활약 중이다. 이민호는 신 한류 돌풍의 원조이자 핵심이다. 김수현은 한류 열풍은 물론 국내 관광 촉진활동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은 가수 이승기·그룹 엑소·배우 김보성·개그맨 김준현·연주자 김재만·프로듀서 고건혁이 수상했다. 엑소는 2012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데뷔 한 후 정규 1집 'XOXO(키스앤허그)' 100만장 돌파, 한·중 연말 시상식 석권 등 각종 기록을 세우며 활약했다. 김준현은 호탕한 웃음과 재치 있는 '개그콘서트' 코너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효진기자

이민호

액션·범죄·드라마·사극 4색 대결

연말 장식할 극장가 4대 배급사 흥행 대진표

연말 극장가를 들러싼 4대 배급사의 흥행 대결 대진표가 마침내 공개됐다. 액션·범죄·드라마·사극 등 각기 다른 장르의 작품들이 2014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전망이다.

그 포문을 여는 영화는 오는 27일 개봉하는 배급사 NEW의 '빅매치'(감독 최호)다. NEW는 지난해 '변호인'으로 두 번째 천만 영화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올해는 '남자가 사랑할 때' '인간중독' '해무' '패션왕' 등 개봉작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흥행 성적을 올렸다.

'빅매치'는 '도둑들' '신세계' '관상' 등 흥행 연타석 홈런을 날리고 있는 이정재의 신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천재 악당으로부터 형을 구하기 위해 주인공 익호(이정재)가 도심 전체를 무대로 뛰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신하균·이성민·김의성·라미란·배성우 등 연기파 배우들, 그리고 첫 한국영화 출연인 가수 보아와 손호준·최우식 등 젊은 피들이 가세했다. 속도감 넘치는 액션으로 관객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전략이다.

지난 여름 '해적: 바다로 간 산적'으로 흥행 침체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던 롯데엔터테인먼트는 김우빈·이현우 등 청춘스타를 내세운 '기술자들'로 12월 극장가를 공략한다. '공모자들'로 주목 받은 김홍선 감독이 연출한 범죄영화다. 김영철·고창석·조윤희·임주환 등도 출연한다.

영화는 인천세관에 숨겨진 1500억원을 40분 안에 털어야만 하는 범죄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친구2'에서 유오성과 호흡을 맞췄던 김우빈의 실질적인 첫 스크린 주연작이기도 하다. 김우빈은 "끝까지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올해 '명량'으로 한국영화 흥행 역사를 새롭게 쓴 CJ엔터테인먼트는 '국제시장'으로 12월 극장가를 찾는다. 천만 영화 '해운대'를 만든 윤제균 감독의 신작이다. '명량'에 이은 또 한 번의 흥행 신기록을 노린다.

'국제시장'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온 덕수(황정민)의 생애를 담은 작품이다. 1950년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1963년 파독 광부, 1974년 베트남전, 1983년 이산가족 찾기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뤄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로도 불리고 있다. 연말에 어울리는 감동 드라마로 관객 마음을 파고들 전망이다.

쇼박스는 당초 예정됐던 '강남 1970' 대신 '상의원'(감독 이원석)으로 12월 극장가 흥행 대결에 나선다. 조선시대 왕실의 의복과 재화를 담당했던 기관인 상의원을 무대로 아름다움을 향한 대결을 그리는 영화다.

영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공간인 상의원을 스크린 최초로 조명해 주목된다. 한석규·고수·박신혜·유연석 등 스타 배우들의 캐스팅, 그리고 아름답고 화려한 궁중 의상의 향연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김형규 '나도 절친 악당'

임상수 감독 신작 캐스팅…류승범·고준희와 호흡

배우 김형규(사진)가 류승범·고준희 등이 출연하는 영화 '나의 절친 악당들'(가제)에 캐스팅됐다.

17일 김형규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김형규가 임상수 감독의 신작 '나의 절친 악당들'(가제)에 캐스팅돼 한창 영화 촬영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의 절친 악당들'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돈가방을 발견한 청춘들이 위험한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김형규는 돈가방을 발견한 지누(류승범)와 나미(고준희)를 쫓는 추격자 창준 역을 맡았다.

김형규는 신인 시절 자신의 롤모델로 류승범을 언급한 바 있다. 날카로운 눈빛과 개성 있는 말솜씨로 드라마와 영화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류승범과 펼칠 연기 앙상블에 관심이 모아진다.

2008년 KBS 드라마 '그저 바라보다가'로 데뷔한 김형규는 SBS 드라마 '쓰리 데이즈'에서 박유천과 대립하는 냉철한 킬러 요한 역을 맡아 눈도장을 찍었다. 얼마 전 종영한 주말드라마 '기분 좋은 날'에서는 능청스러운 매력의 치과의사 서인우 역으로 활약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김형규가 추운 날씨 속 야외 촬영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있다"며 "그 동안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또 다른 색다른 연기를 선보일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한편 '나의 절친 악당들'은 현재 촬영 중이며 내년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코미디·액션 함께 담은 영화"

김동욱·임원희·손호준 '쓰리 썸머 나잇' 촬영 종료

김동욱·임원희·손호준 주연의 코미디 영화 '쓰리 썸머 나잇'이 3개월 동안의 촬영을 마치고 지난 15일 크랭크업했다.

'쓰리 썸머 나잇'은 팍팍한 삶에 지친 명석(김동욱), 달수(임원희), 해구(손호준) 세 친구가 화려한 일탈을 꿈꾸며 내려간 해운대에서 인생 최대의 난관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3일 동안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지난 15일 진행된 마지막 촬영은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세 주인공의 고등학생 시절 에피소드였다. 세 배우는 교복을 입고 고등학생으로 변신해 색다른 모습을 연기했다.

영화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일대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출연배우들은 능청스럽고 자연스러운 연기는 물론 더 코믹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망가지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촬영을 마친 뒤 김동욱은 "배우, 스태프들 모두 고생 많았다. 개봉 때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원희는 "코미디와 액션이 모두 담긴 작품이라 뛰고 넘어지고 또 재미있게 촬영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호준은 "배우, 스태프 모두 힘들게 찍은 작품인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기대된다. 제대로 웃겨드리겠다"고 말했다.

'쓰리 썸머 나잇'은 '주유소 습격사건' '신라의 달밤' '광복절 특사' 등을 연출한 김상진 감독의 신작이다. 김동욱·임원희·손호준 외에도 윤제문·류현경·심은진 등이 출연한다. 내년 상반기 중 개봉 예정이다.

/세계일보기자

크리스티나 김, 9년 만에 우승 감격

박인비·루이스는 마지막 투어서 판가름

재미동포 크리스티나 김(30·한국명 김초롱)이 9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상을 밟았다.

크리스티나 김은 17일(이하 한국시간) 멕시코시티 클럽 데 골프 멕시코(파72·6804야드)에서 열린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총 상금 100만 달러) 마지막 4라운드에서 중국의 펑산산과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크리스티나 김은 이날 보기 5개에 버디 6개를 기록, 1언더파 71타를 적어내며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했다.

펑산산은 이날 보기 1개, 버디 5개, 이글 1개를 잡으며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던 크리스티나 김을 따라잡았다. 18번홀(파4)에서 치러진 연장 1차에서 둘은 나란히 파를 기록했다. 그러나 2번째 대결에서 크리스티나 김은 파를 기록해 보기를 기록한 펑산산을 따돌리고 우승을 확정했다.

이로써 크리스티나 김은 2005년 미첼컴퍼니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이후 9년 만에 LPGA 투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04년 롱스드럭스 챌린지 우승을 포함하면 개인 통산 3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같은 대회에 출전한 세계랭킹 1위 박인비(26·KB금융그룹)는 이날 4타를 줄이고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단독 3위에 올랐다. 이로써 박인비는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2년 연속 수상 가능성을 높였다. 박인비는 이 대회에서 올해의 선수 포인트 9점을 보태 226점을 쌓으며 1위인 스테이시 루이스(미국·229점)와의 격차를 3점 차로 좁혔다. 루이스는 최종합계 3오버파 291타를 기록해 공동 26위에 머물며 포인트를 챙기지 못했다.

세계 랭킹 1, 2위인 둘은 올해의 선수 타이틀을 놓고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열리는 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맞붙는다. 상금 경쟁도 시즌 막판까지 접전을 예고했다. 현재 상금 1위는 루이스가 249만 2483 달러를 기록 중이다. 박인비는 213만 4415 달러로 맹추격하고 있다.

한편 올해 LPGA 투어 신인왕을 받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는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를 게 이 대회 공동 9위를 기록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크리스티나 김이 17일 멕시코시티 클럽 데 골프 멕시코에서 열린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마지막 4라운드에서 중국의 펑산산을 꺾고 우승을 차지해 포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메시·호날두 두 번째 A매치 대결

아르헨티나·포르투갈 19일 친선전

21세기 최고의 골잡이로 손꼽히는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영국 맨체스터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19일 오전 4시50분(이하 한국시간) 아르헨티나는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포르투갈과 친선전을 펼친다.

이번 평가전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위인 아르헨티나와 랭킹 9위인 포르투갈의 대결이라는 점만으로도 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도 메시와 호날두의 역대 두 번째 A매치 대결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더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은 그동안 7차례 A매치를 펼쳤다. 아르헨티나가 5승1무1패로 앞서고 있다.

역대 평가전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경기는 지난 2011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치러진 7번째 평가전이었다. 메시와 호날두가 자국 대표팀으로 처음 대결에 나선 경기였다. 결과는 아르헨티나의 2-1 승리였으나 메시와 호날두는 나란히 1골씩을 기록했다. 다만 메시는 1도움을 기록한 뒤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터트려서 1골만 기록한 호날두에 판정승을 거뒀다.

최근 정규리그에서 상승세만 놓고 보면 호날두의 우세가 예상된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에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에서 팀이 0-1로 지고 있던 상황에 동점골을 넣었다. 그러나 메시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전력이 포르투갈보다 한 수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메시가 다소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용호기자 [illegible]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

저승 갔다온 히딩크

네덜란드, 유로2016 예선서 라트비아에 6-0

자진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거스 히딩크(사진) 네덜란드 축구 대표팀 감독이 기사회생했다.

네덜란드는 17일(한국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레나에서 열린 2016년 유럽선수권대회(유로2016) 조별예선 A조 4차전에서 라트비아를 6-0으로 대파했다.

공격수 아리언 로번(바이에른 뮌헨)이 2골에 1어시스트로 맹활약했다. 로빈 판 페르시(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골-2어시스트, 클라스 얀 훈텔라르(살케)는 2골을 보탰다. 이로써 히딩크 감독은 라트비아전에서 패하면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것을 일단 백지화했다.

지난 8월 네덜란드 사령탑으로 복귀한 히딩크 감독은 이날 경기 전까지 치른 5경기에서 1승4패로 부진했다. 유로2016 조별예선에서는 1승2패를 기록했다. 히딩크 감독은 전임 감독과 대비되면서 현지에서 큰 지탄을 받아왔다. 루이스 판 할 전 대표팀 감독은 올해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 네덜란드를 3위로 이끈 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로 떠났다.

부진이 계속되자 히딩크 감독은 지난 8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라트비아에 패한다면 내가 대표팀을 떠나는 것으로 일면 된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네덜란드는 이날 승리로 승점 6을 쌓아 한 경기를 덜 치른 아이슬란드, 체코(이상 9점)에 이어 A조 3위를 달렸다.

히딩크 감독은 경기 후 "내가 공약한 거취동천을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펼쳤다는 것이다. 우리 선수들은 투쟁심과 용기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을 노리고 사퇴 공약을 내건 것은 아니다"며 "오늘 경기 결과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내 미래보다 최근 대표팀이 치른 경기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자진 사퇴 공약은 사실상 철회했다.

/김학철기자

프로농구 전적 (17일)

KCC	11	17	14	16	65
모비스	22	22	21	21	89

프로배구 전적 (17일)

도로공사	3	1	GS칼텍스
OK저축은행	3	0	우리카드